

코스피 5846.09 (+37.56)	코스닥 1151.99 (-2.01)
금리 (미국 3년) 3.154 (+0.011)	환율 (원/달러) 1441.55 (-5.05)



엑시노스로 AI 성능 'UP'... 갤럭시 S26 베일 벗는다 5900 터치

6천피까지 153포인트 남아

삼성전자, 25일 美서 언팩
'갤럭시 S26 울트라' 언팩의 핵심 낮은 조도 카메라 촬영 성능 개선 전작과 같은 6.9인치에 베젤 줄여 '엑시노스 2600' 탑재 AI 성능 기대

'갤럭시 언팩 2026' 행사가 다가오면서 삼성전자의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를 향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신제품은 갤럭시 인공지능(AI)의 구현 방식과 활용 범위가 한층 구체화되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가운데 카메라·디스플레이·충전 성능 등 전반적인 하드웨어 완성도 역시 주요 관전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S26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언팩의 핵심은 '갤럭시 S26 울트라'다. 울트라 모델은 단순히 스펙 상향을 넘어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하드웨어 완성도를 끌어 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업계에서는 울트라 모델의 조리개를 기존 f/1.7에서 f/1.4로 키워 낮은 조도 환경에서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촬영 성능이 개선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스플레이 기술도 관전 포인트다. 갤럭시 S26 울트라의 디스플레이는 전작과 같은 6.9인치이지만 베젤을 더 줄여 체감 너비와 몰입감을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삼성디스플레이의

5백/80 풀옵선투룸 다가구반지층 대충동	3천/100 풀옵선투룸 채광 Good 대충동	2천/90 채광좋은2층 풀옵선투룸 대충동	2억/140 방3/옥실2 엘베 / 주차 성신APT	1천/50 분리영원룸 풀옵선투룸 대충동	1천/100 풀옵선투룸 울수리 대충동
전세 2억2천 1층 독채 풀옵선투룸 대충동	전세 2억 5천 버팀목대출 방3 옥실1 대충동	전세 1억2천 내대출가능 풀옵선투룸 대충동	전세 8천 분리영원룸 서강대우문 대충동	전세 12억 84B 34평형 방3 / 옥실2 그랑자이	전세 2억5천
매매 3억 갭 8천만원 풀옵선투룸	매매 6억 지분13평 가로주택정비	매매 7억5천 전세 3억 갭 4억5천	매매 6억 지분 6.5평 구역지정임박	매매 4억8천 지분 25평 방6 / 옥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5.6% '경증' 사무소에 물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5.6%로 2024년 상승률(2.7%)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규제하면서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전셋값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난 23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어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5.6%로 2024년 상승률(2.7%)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뉴시스

'플렉스 매직 픽셀' 기술이 적용된 프라이머시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AI성능도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갤럭시 S26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에 삼성전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 2600'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한다. 엑시노스 2600은 2나노 게이 트올러라운드(GAA) 공정을 적용한 칩셋으로 최신 Arm 아키텍처 기반 데카 코어 설계를 통해 전작 대비 중앙처리장치(CPU) 성능이 최대 39%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망처리장치(NPU)도 개선돼 생성형 AI 연산 능력이 113% 늘

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메모리 역시 전작인 갤럭시 S25에서 확립된 '전 모델 12GB 램' 기초를 유지하며 플래그십 성능의 하한선을 높였다. 특히 이번 신작에서는 동작 속도가 20% 이상 빠른 최신 LPDDR5X 메모리가 탑재돼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 성능을 최적화했다.

충전 속도 변화도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수년간 유지해 온 45W 유선 충전에서 나아가 사상 처음으로 '60W 고속 충전'을 지원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경쟁사 플래그십 모델들과의 충전 속도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고사양 AI기능을

장시간 사용하는 유저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가격 물론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주요 부품 단가 상승으로 출고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업계 중론이다. 업계에서는 갤럭시 S26 시리즈 전 모델이 전작 대비 9만9000원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 모델인 갤럭시 S26(256GB)의 국내 출고가는 125만4000원, 갤럭시 S26 플러스(256GB)는 145만2000원, 갤럭시 S26 울트라(256GB)는 179만7000원이 거론된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코스피가 장 중 5900선을 돌파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0.65% 오른 5846.09에 마감했다. '육천피'(코스피)까지는 불과 153.91포인트를 남겨 두게 됐다. 특히 장중 코스피는 5900(5931.86)까지 치솟았다.

코스피가 강세를 보인 건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추진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한 만큼 수출 중심 구조인 국내 경제와 기업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기사 13면>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1.53% 올라 사상 최고가인 19만3000원에 마감했다. 시총 2위이자 반도체 대표주인 SK하이닉스는 0.21% 상승해 사상 최고가인 95만1000원을 기록했다. 지난 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SK하이닉스 주식 3640만주를 보유해 지분율이 5%를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美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영향 장중 5931.86 터치, 5846.09 마감 삼성 19.3만원, SK 95.1만원 기록

대법원의 관세 무효 결정을 호재로 인식한 현대차 또한 이날 6.09% 급등했다.

코스피가 6000선에 바짝 다가서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자 증권가에서는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속속 높여 잡고 있다.

노무라금융투자는 이날 올해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로 최대 8000을 제시했다. 범용 메모리 및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슈퍼 사이클, 인공지능(AI) 설비 투자 밸류체인과 방위 산업 부문의 견조한 실적, 피지컬 AI의 밸류체인에 대한 재평가 등을 들었다. 앞서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 강세장 시나리오를 가정해 지수 목표치를 7500으로 제시했고, 씨티그룹도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5500에서 7000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지정학적 갈등은 시장을 흔들 불쏘시개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핵 협상 중인 이란에 '10일간의 최후통첩'을 보냈다는 소식은 글로벌 금융 시장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다. 이날 일본 닛케이225는 1.12% 밀렸고,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하락해 마감했다. 지난 주말 국제 유가는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고, 안전 자산인 금은 다시 온스당 5000달러를 넘어서는 등 불안 심리가 커졌다. /신하은 기자 godhe@

2030년 방산 스타트업 100곳·천억벤처 30곳 육성

중기부-방사청, 업무협약 맺고 '방산발전추진단'도 꾸리기로

정부가 2030년까지 방위산업분야에서 스타트업 100개사와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과 함께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문체부 범정부 콘트롤타워인 '방산발전추진단'을 꾸린다.

중기부와 방사청은 23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방산스타트업 육성 관계기관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

이날 나온 육성방안과 업무협약은 지난 1월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진행했다.

협약 내용에는 ▲방산 분야 유망(예비)창업기업 발굴·성장 지원 프로그램 공동 추진 ▲방산 기업·기관과 중소·창업기업의 기술협력, 정보공유 활성화 ▲방산 중소·창업기업의 기술 개발·고도화, 국내외 시장 진출 등 성장 지원 ▲방산분야 상생협력모델 발굴 및 상생협력사업 공동추진·연계 ▲방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협약기관 간 방위산업 분야 업무공조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중기부와 방사청은 혁신 스타트업들의 방산 분야 진입 기회를 넓히고 성장 기반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방산참여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도 더욱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개최, 군 데이터 활용 인프라 확대, K-방산 스타트업(방사청)-초격차 스타트업 사업화(중기부)-방산 혁신기업 100(방사청) 사업간 연계, 기존 방위산업 펀드와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활용한 방산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방산 대·중견기업 상생수준 평가 등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그간 방위산

업은 군 수요를 충족하며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에 기여해왔다. 이제는 군 수요를 선도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산 유니콘 성장의 토대를 다져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제조·대기업 위주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스타트업도 강한 방산 생태계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스타트업과 기존 방산 생태계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한 때"라며 "방산 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에 정부의 정책적 마중물을 더해 우리 K-방산이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메트로 한줄뉴스



▲與 "野" 대미투자특별법 방해 매국행위...국익 불모로 발목
▲배현진 장동혁 거창 "고성국 왜 함구하나...못 건드는 '상왕' 있다" /사진 뉴시스

▲홍준표 "보수 궤멸시킨 한동훈이 대구? 제2의 유승민 될 것"
▲오세훈 "절운 없으면 승산 없다...저도 위험해 절규하는 것" 지적

▲송영길 계양을 국정설명회 불참...후보 교통정리 수순 관측도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사의...인천시장 출마 선언

韓-브라질 정상회담

양국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 경제·정치 등 협력 강화

‘韓-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 채택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공감대 형성
중소기업·농업 등 10개 분야 MOU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3일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의 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 정책의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브라질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 정상 간의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양국 정상은 1959년 수교 이후 67년 만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한-브라질 확대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경제·실질 협력·민간 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 로드맵으로 삼기로 했다.

또 서로의 신뢰를 토대로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

파라과이·우루과이 등이 속한 남미의 경제협력체다. 양국 정상 모두 무역협정 체결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또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소기업·보건·농업 등을 비롯한 10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 및 약정을 체결

했다. 특히 '중소기업 협력 MOU'로 대기업 중심의 교역 구조를 다변화하고, '보건 분야 규제협력 MOU'를 통해 K-화장품의 브라질 진출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도 MOU 3건을 체결했다.

우주·방위산업·항공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공급망 협력도 강화된다. 이 대통령은 우주, 방산, 항공 분야의 지평 확대를 언급하며 "브라질 수송기 제조에 우리 부품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항공 분야에서도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보와 글로벌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 협력을 재개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열어내겠다는 의지를 룰라 대통령에게 설명했다며 "양국이 한반도 평화를 넘어 세계적인 평화의 가치를 함께 수호할 것"이라고 말

했다. 이외에도 양국 유학생 교류 확대, 영화·영상 공동제작 등 콘텐츠 분야 교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공통의 비전과 과제'를 공유했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포용적 성장'이라는 공통의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정책 공조도 약속했다. 빈곤 퇴치와 경제발전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룰라 대통령의 '포용적 성장'과, 기본사회를 토대로 경제의 역동성을 키우며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겠다는 한국 정부의 구상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의 비전을 설명하고, 복지와 경제의 시너지를 창출할 정책에 대한 양국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며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기자 syj@metroseoul.co.kr

송미령 장관, 농기계·농약 수출길 넓힌다

(농식품부)

파바로 브라질 농업장관 면담
식량안보·교역 활성화 등 합의

한국과 브라질 농업장관이 만나 식량안보 협력·농기자재 교역 활성화 등에 합의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카를로스 엔히키 바케다 파바로 브라질 농업축산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적인 농업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면담에서는 농업협력 양해각서(MOU) 개정을 비롯해 식량안보, 농기자재 수출 확대 등에 대해 양측 입장을 교환했다.

한-브라질 양국은 2005년 체결 이후 정체 상태였던 농업협력위원회를 재정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 협력위에서 식량안보와 디지털 농업, 농기계, 농약, 민간투자 및 동식물 검역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게 된다.

또 협력위 개최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글로벌 곡물 생산국인 브라질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가 식량안보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국 장관 면담은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성사됐다. 세계적 농업 강국인 브라질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

라 식량안보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스마트농업 기술과 농기계·농약 등 K-농자재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K-푸드 수출 측면에서는 한국산 홍삼의 브라질 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국은 또 한국산 포도 수출 등 주요 검역 현안 관련해, 재정비된 협력틀 안에서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송미령 장관은 브라질 식약당국의 심사 기간이 길어 한국 기업들이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고 '신속한 검토 및 심사기간 단축'을 상대국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서울에서 카를로스 엔히키 바케다 파바로 브라질 농업축산장관과 양국 간 농업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마주하고 있다. /농식품부

요청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국 합의에 따라) 스마트팜을 비롯해 농기계와 농약 등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농업강국 브라질과 실질 협

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K-농자재의 수출 시장을 중남미 전역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연세 기자 kys@

공정위, 성기학 영원 회장 검찰고발... "대기업 지정 회피"

가족 소유 계열사 등 82곳 신고 누락

아웃도어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는 영원의 성기학 회장이 자신과 딸 등이 소유한 계열사를 소속회사로 신고하지 않으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정을 회피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2023년 공시집단 등 지정을 위한 지정자료 제출시, 영원이 총 8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성 회장은 2021~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본인 및 친족(혈족 14촌) 회사 43곳, 임원 회사 39곳 등 총 82곳(중복 제외)을 누락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9곳, 2022년 74곳, 2023년 60곳이다.

특히 본인이 자본 100%를 보유한 스포츠를 비롯해 자녀·남동생·조카 소유 회

사까지 소속회사에서 빠뜨렸다. 일부는 주력 계열사와 거래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영원은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 늦어도 2021년부터는 공시집단에 지정됐어야 함에도 소속 계열사를 누락해 2023년까지 3년 간 지정에서 제외됐다. 2024년에서야 공시집단으로 첫 지정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영원은 공시집단 지정이 늦어지면서 실제 소속 87개사가 이 기간 규제를 받지 않은 셈이다.

공정위는 "통상 먼 친척이나 임원 회사가 누락되는 사례는 있었지만, 동일인이 100% 보유한 회사까지 누락한 경우는 사실상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딸 소유 회사 중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까지 빠뜨린 점에서 인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정자료 기준으로 영원은 2021년 5

월 계열사 5곳, 자산 3조1617억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누락 자산 2조5800억원을 합하면 실제 자산은 5조7417억원에 달한다. 2022년에는 합산 6조2419억원, 2023년에는 6조38863억원으로 각각 5조원 기준을 크게 상회했다. 누락 82개사 자산 합계는 3조2400억원이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그간 자산총액 5조 원 미만 기업집단들의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을 요구하는 간소화된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인을 고발한 최초 심결"이라며 "기업집단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어 온 제도의 취지를 왜곡한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 시도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한용수 기자 hys@

정부, 美 관세 대응체계 가동... "우호적 협의"

산업부 김정관 장관 민관합동 대책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추가적인 관세 압박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파장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미 I E E P A 판결 및 추가 관세조치 관련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 E E P 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개시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재경부·외교부·농식품부·기후부·복지부·중기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대한상의·

무역협회·중기중앙회·한경협·코트라 등 경제단체, 자동차·반도체·배터리·철강·바이오 등 주요 업종별 협회가 참석했다.

정부는 미측의 관세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세협외에 따른 대미 투자 방안 등 우호적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협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하고, 관세 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한용수 기자

美 USTR 301조 카드 꺼냈다... 韓 디지털 규제에 통상 압박

〈무역대표부〉

망 사용료·온플랫폼 '비관세 장벽' 지목
국회입법 본격화에 美 압박수위 상승
플랫폼 지배력 규제, 최대쟁점 부상
디지털 통상 갈등 재점화 등 우려



미국 연방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무역법 122조와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를 꺼내 들어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했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미국 정부가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통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의 망 사용료 입법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고정밀 지도 반출 등이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한미 간 통상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3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미국 기업이나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보복 조치를 단독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절차와 무관하게 행정부 재량으로 발동할 수 있어, 미중 무역 분쟁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USTR는 매년 발간하는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우리나라의 망 사용료 문제와 고정밀 지도의 국외반출 제한,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제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을 대

표적인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 왔다.

지난 1월에도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디지털 관련 입법·법적 조치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해당 서한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망 사용료 문제를 '네트워크 사용료'라는 명칭으로 직접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국회에는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망 이용 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 4건이 계류돼 있다. 해당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계기로 논의가 재점화됐으나, 미국은 이를 명백한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며 통상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넷

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계 글로벌 CP들은 망 사용료 입법 움직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와 함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월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를 본격화하면서 처리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금지 조항이 적용될 경우 구글·애플의 검색 상단 노출 구조나 유튜브 뮤직 결합 판매 등 이른바 '록인(Lock-in)' 전략이 제약될 수 있다.

여기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까지 더해질 경우 수수료 기반 수익 구조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돼, 플랫폼 지배력을 흔드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미국 빅테크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글과 애플이 정부에 요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또한 현재 최종 결정을 앞둔 만큼 이번 사태의 영향권 안에 있다. 구글은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정부 조건 일부를 수용한 보안서류를 제출했고, 애플 또한 서류 보안을 조건으로 지난해 12월 예정했던 결정 시한을 올해로 연장한 상태다. 다만 서류 검토에 시간

이 필요한 만큼 최종 결론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안에 따라 미국의 공세 강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온플법의 경우 최근의 쿠광 사태로 크게 부상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상당히 큰 압박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망 사용료의 경우 이미 미국 테크 기업들이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부분인 만큼 국내의 기업역차별을 두고 USTR가 압박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안정성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는 "슈퍼 301조의 경우 한국 기업에는 우호적이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에는 불리한 규제를 중심으로 다루는데, 디지털 관련한 부분에서는 온플법이 가장 큰 사안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디지털자산 기본법’ 막바지 지분제한·은행주도안 쟁점

금융당국, 5대거래소 비공개 간담회
민주당 기본법 최종안 검토 착수
내달 입법 절차 본격화 전망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규제 현실화를 위한 막판 논의가 활발하다. 금융당국은 정부안 마련에 앞서 5대 거래소가 참여하는 비공개 업계 간담회를 가졌고, 여당은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한 최종 검토에 돌입한다. 이르면 다음달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권 컨소시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았다.

23일 금융위원회와 디지털자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거래소의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대주주의 지분을 제한, 외국인 거래 및 파생상품 취급 허용 등 규제 완화 방안 등 업계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에는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최종안 마련에 앞서 전문가·법조계·디지털자산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다. 이어 26일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개최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대주주 지분 제한의 필요성 및 시장 여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이 입법 논의를 서두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당안과 정부안 이어느 정도 일치점을 이룬다면 이르면 오는 3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본격적인 입법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주요 쟁점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 컨소시엄' 구성 등이다.

'거래소의 지분 제한'은 개별 대주주의 최대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와 은행 지주사의 지분 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소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지배구조를 분산한다는 의도다.

'은행 컨소시엄'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1개 혹은 복수의 은행이 포함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게 하는 방안이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가치와 연동된 만큼, 높은 내부통제 수준과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은행이 발행을 책임지도록 한다는 목표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금융의 모든 순간 NH투자증권

내투자증권 퇴직연금 결과로 증명합니다

2025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출처: 고용노동부 '25.11월

2025
퇴직연금 증권업
우수사업자

출처: 고용노동부 '25.11월

2024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출처: 고용노동부 '24.10월

이제, 연금도 투자다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

[투자유치형] ※가입전 설명 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필독 ※DB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DC/R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고세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연금인 수령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소득세(16.5%) 부과 ※DC 퇴직금재원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는 적립금 평잔 구간별 상이하게 부과되며, 가입자 회사에 납입. 단, 가입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금융투자상품별 보수 발생 ※RRP-N2 적립금 평잔*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0.08%~0.15%)와 자산 관리수수료(0.07%~0.10%)가 발생하며 연 후취, 적립금 평잔 구간별 상이. 단, 가입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금융투자상품별 보수 발생. 자세한 수수료율은 홈페이지 참고(적립금 평잔*연간 일차별 평가 금액의 평균값, 퇴직금 이전분에 한함) ※RRP-N2 디이벡트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자산관리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음. 단, 가입하는 금융투자상품별 보수 발생 ※RRP-N1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자산관리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음. 단, 가입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금융투자상품별 보수 발생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5453호(2025-12-31 ~ 2026-12-31)

NH투자증권

조선업계, LNG 넘어 방산·MRO·생산 자동화로 수익 다변화

〈보수·정비〉

과거 수주 사이클 실적 전환 진입
고선가 선박 인도효과로 실적개선
LNG선 신조 발주 회복 기대도

해상 통제 경쟁·북극항로 패권다툼
글로벌 특수선 수요 확대 전망
AI 기반 생산 공정 자동화 확대

고선가 선박 인도 효과로 실적 회복에 성공한 국내 조선업이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과 생산 효율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LNG 중심 상선에서 방산·합정 유지·보수·정비(MRO) 등 신규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생산 자동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고가 수주 본격 반영, 빅4 실적 동반 개선… LNG선 중심 전략 유지

23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발주 확대 기(2021~2022년)에 확보한 고선가 선박이 본격적으로 인도되면서 국내 조선 4사가 지난해 일제히 실적 개선 흐름에 올라섰다. 수주 후 2~3년 시차를 두고 매출이 반영되는 산업 특성상 과거 수주 사이클이 실적으로 전환되는 구간에 진입한 데다, 생산 정상화에 따른 고정비 흡수 효과가 겹친 결과다.

조선업에서 고선가 선박은 LNG 운반선과 해양플랜트 등 고사양 기술이 필요한 고부가 선종을 뜻한다. 글로벌 시장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전경.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삼성중공업

조사업체마켓그로스리포트에 따르면 LNG 탱커 건조비는 용량·기술 통합 수준에 따라 평균 1억8000만~2억5000만 달러로, 극저온 저장 설비 등 고난도 기술이 요구된다.

이 같은 고부가 선종 인도 확대에 지난해 HD현대중공업은 매출 17조5806억원(전년 대비 +21.4%), 영업이익 2조375억원(+188.9%)을 기록했고, 한화오션은 매출 12조7835억원(+18%), 영업이익 1조1676억원(+366%)을 올렸다. 삼성중공업은 영업이익 8622억원(+72%)으로 수익성이 개선됐으며, HJ중공업은 영업이익 670억원(+824.8%)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상황 측면에서도 LNG 중심의 상선 전

락은 당분간 유효하다는 평가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얼라이드마켓리서치는 글로벌 LNG 운반선 시장 규모가 지난 2023년 1351억 달러에서 오는 2033년 2448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연평균 성장률 6.2%). 미국·카타르·캐나다의 LNG 수출 프로젝트 가동과 운임 반등이 맞물리며 LNG선 신조 발주 회복도 기대된다. 노후 LNG선 폐선 증가 역시 교체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방산·MRO 확대, 생산 자동화 병행… 수익구조 다변화 가속

국내 조선사들은 방산과 합정 MRO를 중장기 성장축으로 삼는 동시에 생산 자동화 투자도 병행하며 수익원 다변화와 생산성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해상 통제권

경쟁과 영유권 분쟁, 북극항로를 둘러싼 패권 다툼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특수선(합정)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화오션은 지난 2024년 전 세계 군비 지출이 2.72조달러(약 3800조원)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고, 해상 충돌 횟수도 2010년대 초 연 20건 수준에서 2023~2024년 80건 이상으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미·중 해양 패권 경쟁 심화 역시 특수선 시장 확대 요인으로 거론된다.

기업들은 수주 확대와 생산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습이다. HD현대는 특수선 부문에서 필리핀 후속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페루 현지 합정 건조 사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 2024년에는 미 해군 합정정비협약(MSRA)을 취득해

전투함 MRO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했다. 생산 측면에서는 'FOS(Future of Shipyard)'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조선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로봇·비전·AI 기술을 활용한 생산 공정 자동화도 확대하고 있다.

한화오션도 지난 2024년 7월 MSRA를 취득해 전투함 MRO 사업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특수선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제시하며 특수선 매출을 최근 1조원 수준에서 오는 2030년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거점 확보에도 나서 지난 2024년 12월 미국 필리 조선소 인수를 완료했다. 해당 조선소는 연간 1~1.5척 건조 능력을 갖췄다.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AI 기반 스마트야드 구축을 통한 생산성 제고도 추진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조선소 전 영역 데이터를 통합하는 생산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며 디지털 기반 생산 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 기반 선박 모니터링과 AI 고장 진단 등 스마트십 솔루션 개발을 병행하는 한편 자율운항 기술 실증과 연구선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HJ중공업도 MSRA 체결 대상자로 선정돼 미 해군 합정 정비 시장 진입 기반을 확보했다. 전투용 무인수상정(USV) 기술 개발에도 참여하며 방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테슬라 '오토파일럿' 위험성 논란… 정의선 '안전 리더십' 재조명

〈현대차그룹 회장〉

테슬라 사망사고에 3500억 배상 판결
현대차, 자율주행 기술 도입 연기
지속 투자로 기술 경쟁력 확보 집중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 판결을 둘러싸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강조한 자율주행의 안전성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 회장은 자율주행 분야에서 테슬라와 웨이모 등과의 기술 격차를 인정하면서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꾸준히 강조해 왔다. 반면 테슬라는 2014년 오토파일럿을 공개하고 자사 모델에 순차적으로 도입하며 기술력을 과시해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지난 주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사망 사고에 대해 약 2억 4300만 달러(한화 약 3500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배심원 판결을 유지했다. 테슬라가 제기한 판결 무효화와 새 재판 요청은 기각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플로리다에서 테슬라 모델S 차량이 오토파일럿 주행 중 정지 표지판과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변에 주차된 SUV 차량에 부딪치며 발생했다. SUV가 인근에서 있던 커플을 덮쳤고 당시 22세 여성이 숨지고 남성은 중상을 입었다. 원고인 유족들은 당시 차에서 작동하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 등을 제대로 감지해 대응하지 못했으며, 테슬라가 이같은 오토파일럿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자율 주행 기능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줄소송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오토파일럿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 테슬라가 오히려 발목이 잡힌 모습이다. 실제 테슬라는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논란으로 곤욕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는 차량 마케팅에서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 사용을 중단했다. 캘리포니아 자동차국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마케팅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테슬라의 차량 판매와 제조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리기로 하면서다.

반면 정의선 회장은 자율주행 기술 도입을 미루며 안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기술은 글로벌 레벨 2+ 경쟁 속에서 레벨 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네시스 G90과 기아 EV9에 레벨 3급 'HDP(고속도로 자율주행)'를 탑재하려던 계획은 실제 도로 변수와 안전성 검증 부담 등으로 연기된 상태다.

그러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카메라 중심 기술로 전환하며 자체 개발 중인 자율주행 기술도

정의를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5일 경기 용인시 기아 비전스퀘어에서 열린 기아 80주년 기념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행 AI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로보택시 부문에서는 구글 웨이모와 합작사 모셔널을 통해 기술을 축적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자율주행 AI 적용 차량을 공개하고 2027년 레벨 2+ 수준 차량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해 12월 '기아 창립 80주년' 행사에서 "우리가 자율주행 기술이 조금 늦은 면이 있고 중국 업체나 테슬라가 앞서고 있다"며 "자율주행 기술 격차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단순 기술 추격을 넘어 '안전 리더십' 경쟁으로 구조를 전환하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해 12월 '기아 창립 80주년' 행사에서 "우리가 자율주행 기술이 조금 늦은 면이 있고 중국 업체나 테슬라가 앞서고 있다"며 "자율주행 기술 격차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단순 기술 추격을 넘어 '안전 리더십' 경쟁으로 구조를 전환하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해 12월 5일 경기 용인시 기아 비전스퀘어에서 열린 기아 80주년 기념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삼성SDS, 올해 '5대 사이버 보안 위협' 제시

AI 악용·오용 인한 보안 위협
랜섬웨어, 클라우드 보안 등

삼성SDS가 지난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사이버 보안 이슈를 분석해 2026년 기업에 영향을 미칠 '5대 사이버 보안 위협'을 23일 발표했다.

이번에 제시된 위협은 ▲인공지능(AI) 악용 또는 오용으로 인한 AI 기반 보안 위협 ▲랜섬웨어 ▲클라우드 보안 위

협 ▲피싱 및 계정 탈취 ▲데이터 보안 위협 등이다.

삼성SDS는 국내 IT·보안 담당 실무자와 관리자, 경영진 667명의 의견을 바탕으로 각 위협에 대한 대응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AI 기반 보안 위협과 관련해서는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권한 남용, 데이터 유출, 무단 작업 등의 위협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AI에 최소 권한을 부여하고, 민감한 명령 수행 시 실시간 모니터링과 사용자승인 절차를 포함한 통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랜섬웨어는 데이터 암호화, 탈취 데이터 공개 협박, DDoS 공격, 이해관계자 압박 등 이른바 '4중 갈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백업 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복구와 함께 사전 차단, 이상 행위 탐지, 사고

발생 후 격리·분석·복구 등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직원 대상 정기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클라우드 보안 위협과 관련해서는 설정 오류와 권한 관리 미흡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과도한 스토리지 공유, 인증 설정 오류, 기본 설정 방치 등에 대비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한 설정을 자동으로 탐지·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싱 및 계정 탈취는 내부망 침입과 데이터 유출, 추가 해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위협으로 꼽혔다. 특히 챗봇

과 AI 에이전트 등 AI 계정에 부여된 접근 권한에 대해서도 다중 인증 체계 적용과 계정·역할·정책에 대한 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데이터 보안 위협과 관련해서는 단일 인증 체계와 과도한 권한 부여, 미흡한 접근 관리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직무와 역할 기반 접근 제어는 물론, 대량 다운로드나 비정상적 접속 등 사용자 행위 기반 통제를 병행해야 하며, 협력사와 공급망 전반을 포함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2012년 다산 정약용 탄생 250주년, 2021년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에 이어
2026년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해 지정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 강국을 간절히 바랐던
김구 선생의 꿈이
K-컬처의 세계적 열풍으로 실현된 지금

그 꿈을 더 오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2026년 우리은행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합니다



우리은행 X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우리나라  우리은행

당정 “수익 개선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 연내 개정안 마련”

“국민연금처럼 운용, 수급권 보호”
인허가 요건·기금운영체계 등 담겨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 단계적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개인이 각자 운용하던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고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3일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협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고용노동부가) 의견을 제시했고 인허가 요건이나 기금운영체계, 관리·감독도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중퇴기금) 확대에 맞춰서 기금운용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왼쪽부터) 의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학영 의원, 한정에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고용노동부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인력 늘려가겠다는 설명도 있었다”면서 “노동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업계 대표사업자 및 노사단체가 실무작업반을 구성, 운영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

신규 취업자 우선 적용과 영세 사업장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1년 미만 근무한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등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등 추가 과제도 사회적협약체와 함께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 6일 퇴직연금제

도 구조 개편에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합의했다. 수익률 개선을 위해 전문가가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업이 도산해도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의 모두발언에서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노사정이 지난 6일 이뤄낸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토대로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사외적립 의무화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영세 사업주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부는 노동자 수급권 보장 및 선택권 확대 그리고 가입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공동선언의 핵심 정신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마련하고 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준비 상황 및 후속조치도 점검했다.

정부는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용자성 판단을 지원하는 자문기구와 전담팀을 운영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공공부문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쟁점 사안에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영훈 장관은 “(노란봉투법)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된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자 격차 해소법”이라며 “개정 노동조합이 예측할 수 있는 질서가 되도록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 대응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하청 교섭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고, 상생 교섭의 모범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국힘, 의총서 ‘장동혁尹 절연 거부’ 충돌

의원들 “尹 절연 안하면 당 참패”
장 대표, 여론 자료 제시하며 반박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당내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범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참패한다고 얘기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순장조인이라고 제가 반문을 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절연 거부’에 대한 당내 비판을 반박하기 위해 비공개 여론조사 자료를 제시했다고 한다. 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더 많았다고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는 지도부를 흔들어서는 안 되고, 단일대로 대어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을 하고 있다. /뉴시스

상현 의원은 취재진에게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고, 12·3 계엄, 내란, 탄핵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서 선거체제로 가자는 당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지도부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에게 개편이니 사퇴니 이견 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는 당명 개정과 관련된 보고 시간이 길어지면서 ‘절연 거부’에 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것에 대한 비판을 듣지 않으려 일부러 ‘김빠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다. 실제로 일부 의원들은 오찬 일정으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은희 의원은 의총장을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당명 보고를 짧게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선수를 바꿔가면서 1시간 20분 동안 하고 있다. 뭘 논의하겠다는 건가. 누구를 위해서 의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얼마 전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은 “어제 당명 개정은 안하기로 한 것 아닌가. 1시간 넘게 당명 개정과 대구·경북 통합 논의만 하고 있다”며 “오늘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대폭락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한가한 얘기만 할 일인가”라고 말했다. /뉴시스

김남국 전 비서관, 민주당 대변인 임명

“국민의 표현으로 당 메시지 전달”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사진)을 23일 당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김 전 비서관 임명 사실을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비서관의 대변인 임명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 근무를 통해 대통령실 국정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고 국정과제를 당에서 뒷받침해야

할 시기에 적절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변인 추천은 저도, 당대표도 공감한 부분”이라며 “본인 여러 입장이 있을 텐데 당을 위해서 중요한 지식을 앞둔 시기에 대변인 제안에 대해 본인이 수락해준 점은 당이 고맙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 전 비서관은 ‘원조 친명(친이재명) 모임 7인회’ 구성원으로, 민주당에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엔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



통비서관으로 합류했다가 지난해 12월 당시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였던 문진석 민주당 의원과 주고 받은 ‘인사 청탁 문자’ 논란으로 인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날 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여러 부족함에도 대변인으로 임명돼 큰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낀다”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당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당의 메시지를 국민과 당원들께 쉽고 국민의 표현으로 분명하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 “美 관세 15% 부과시 FTA국 유리” (경제부총리)

재경위 ‘관세 무효’ 관련 현안질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우리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기에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금 변경된 구조에서 평균 관세율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는 질의에 “만약 (관세율이) 15% 올라가면 저희들은 FTA가 0%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가비상경제관헌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면관세(글로벌관세) 1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어떤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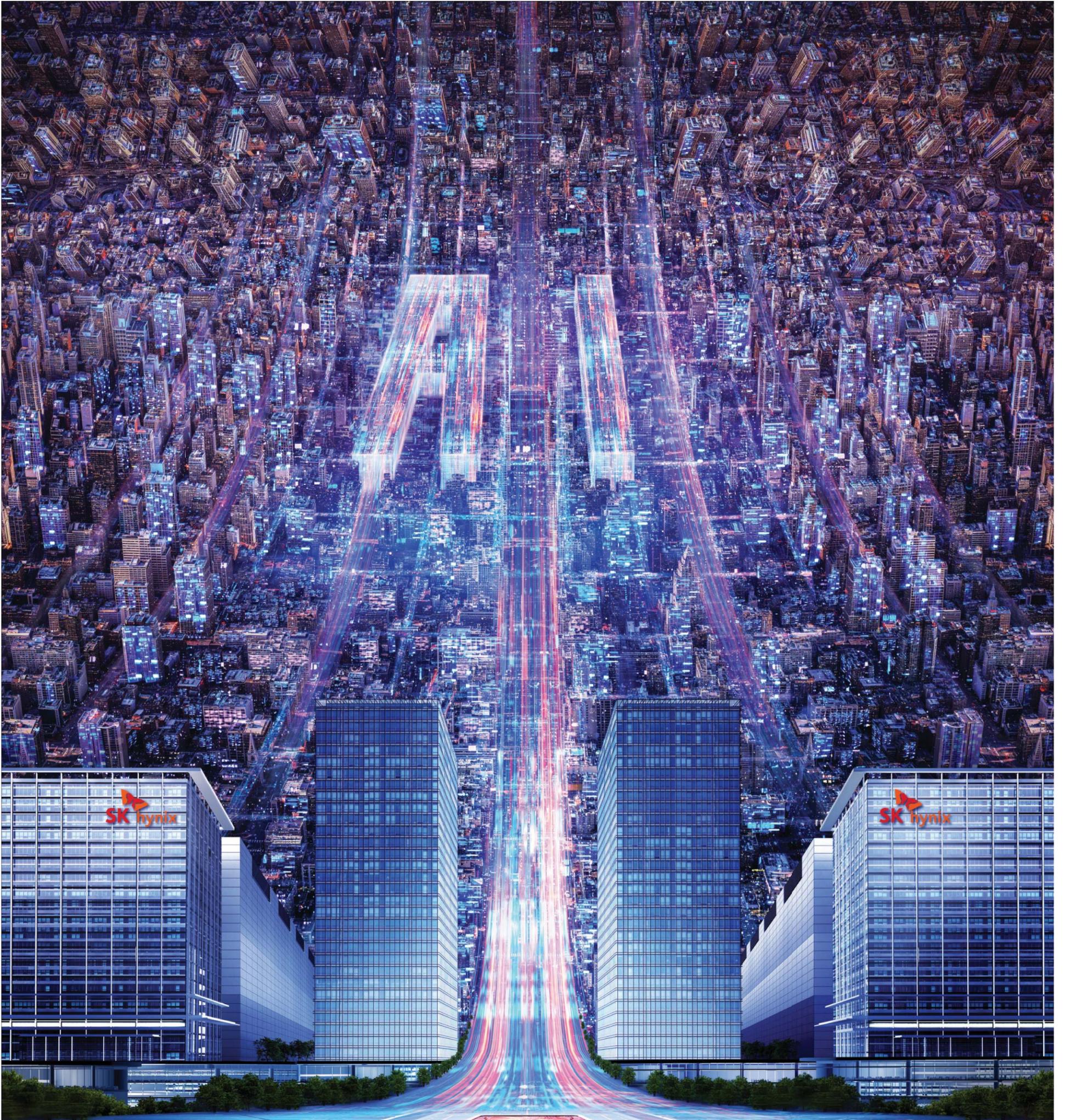
이어 “관세가 15%로 올라간다면 지난번에 비해 변화될 가능성이 작지 않을까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계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FTA 체결국으로서 FTA 효과를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냐’고 거듭 질문하자 구 부총리는 “FTA 체결국으로서 그 부분만큼 적어도 립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예단하기가 조금 어렵다’며 ‘냉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관세 무효 판결과는 별개로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등 지난해 합의한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내용을 이행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이 지연될 경우 파장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 측이 양해각서(MOU)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가능성이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대로 진행되는지 미국에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기존 합의된 MOU는 최대한 지키려고 한다. 그걸 지키려면 미국에서도 과다하게 하지는 않으리라 보여진다”면서 “비관세 장벽 같은 경우도 팩트시트 범위 안에서 서로 협의하고 있다.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시 대 전 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곳에서 새로운 AI 시대가 펼쳐집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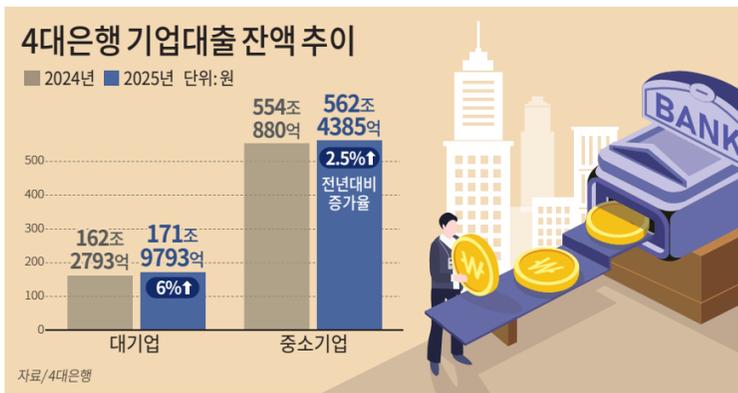
기업대출 양극화... 대기업 6% 늘 때 中企 1.5% 증가 그쳐

은행들, 건전성 관리에 무게 뒀
4대 시중은행·5개 지방은행도
신용등급 높은 대기업 위주 대출
中企 금리부담·유동성 압박 우려

지난해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기업 대출이 증가했지만, 증가분 대부분이 대기업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기업 중심의 대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방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K 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연간 기업 대출 잔액은 738조54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 719조6675억원 대비 2.5% 증가한 규모다.

이처럼 기업대출 잔액이 확대된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르게 확대되자, 정부는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실제로 4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1월 595조5382억원 ▲3월 598조6686억원 ▲6월 608조6663억원 ▲9월 618조7236억원 ▲12월 621조8707억원으로 지난해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급격히 둔화했다.

문제는 기업은행 증가분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쏠려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대기업 대출 잔액은 171조9793억원으로 전년(162조2793억원)대비 6%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562조4385억원으로 같은 기간 1.5% 증가에 그쳤다.

금리 상승기와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에 무게를 두면서 신용등급이 높고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대기업 위주 대출을 확대한 영향이다.

이같은 흐름은 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 등 5개 지방은행에도 나타났다. 5개 지방은행의 지난해 말 대기업 대출 잔액은 10조8310억원으로 전년(8조8786억원) 대비 22.0% 늘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86조6275억원에서 88조3476억원으로 2%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생산적 금융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까지는 확산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 중심의 여신 쏠림이 고착화될 경우, 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중소기업은 금리 부담과 유동성 압박이 동시에 심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권이 위험관리 차원에서 우량 차주 중심의 여신 전략을 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생산적 금융 확대라는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기업 규모별 자금 배분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한 대출 잔액 증가가 아니라, 중소기업·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실질적 금융 접근성 개선 여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 대출 규제로 기업 대출이 늘었지만, 이는 위험이 낮은 대기업 위주의 선별적 확대에 가깝다"며 "정책 금융기관과의 협업, 보증 확대, 금리 우대 프로그램 등 보완 장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해소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내달 전국 아파트 9597가구 '집들이' 전년비 65% 감소

다음 달 입주 예정인 아파트 물량이 지난달보다 3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9597가구 규모다. 지난해 3월 입주 물량보다 65% 감소한 수준이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5513가구, 지방 4084가구가 입주한다. 수도권은 지난해보다 22%, 지방은 53% 줄며 전국 입주 물량이 급감한 모습이다. 수도권 입주는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예정돼 있다. 인천 입주 물량 공백으로 수도권 전체 공급 규모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양평동1가 영등포자이디그니티(707가구)와 양천구 신정동 목동중앙하이츠(103가구) 등 810가구가 입주한다.

경기 지역은 외곽을 중심으로 5개 단지, 총 4703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역별로 ▲평택 2723가구 ▲안성 992가구 ▲파주 988가구다. 평택에서는 지제역반도체밸리풍경채와 힐스테이트평택화양이, 안성에서는 해링턴플레이스 진사 1·2BL이,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운정자이시그니처가 입주를 시작한다.

지방은 6개 단지, 총 4084가구가 입주한다. ▲강원 1167가구 ▲충남 1060가구 ▲대구 993가구 ▲경남 814가구 ▲제주 50가구 순이다. 강원 원주는 원동 내 최대 규모 단지로 전망되는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원주가 입주하고, 충남 아산시와 대구 달서구에서도 대단지 입주가 이어진다.

/서채리 인턴기자 cr56@

카드론 잔액 42.6조 '증가세'... 부실채권 상각 기저효과

카드사 9곳, 전월비 2559억 확대
저신용자 카드론 금리 인하 영향도

지난달 카드론 잔액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말 부실채권 상각에 따른 기저효과, 카드론 금리 하락으로 인한 영업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사 9곳(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카드론 잔액 총합은 42조585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42조3292억원)보다 2557억원(0.6%) 가량 확대됐다. 단, 전년 동기(42조7309억원) 대비로는 1459억원(0.34%) 감소했다.

앞서카드론잔액은 지난해 9월 41조8375억원에서 10월 42조751억원, 11월 42조5529억원으로 2개월 연속 증가세



금리 하락으로 카드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한 거리에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이 붙어있다. /뉴스시스

를 보이다 12월 가계대출 관리 기조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바 있다. 그러다 올해 초 카드론 잔액이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지난해 11월 잔액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번 카드론 확대는 지난해 말 부실채권 상각으로 인한 기저효과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상각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하

고 있다. 여기에 새해에 자금 수요가 몰리는 연초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카드론 잔액이 소폭 늘어난 모습이다.

카드사별 카드론 증가 폭을 살펴보면 ▲삼성카드 525억원 ▲NH농협카드 447억원 ▲롯데카드 437억원 ▲우리카드 266억원 ▲신한카드 256억원 ▲KB국민카드 256억원 ▲하나카드 255억원 ▲현대카드 106억원 순이다.

카드론 금리 하락도 한몫했다. 지난해 12월 13.10~14.76% 사이에서 형성됐던 8개 전업 카드사 카드론 평균 금리 구간은 지난달 13.07~14.40%로 하락했다. 700점 이하 저신용자들의 금리 구간 역시 15.39~18.77%에서 15.27~18.00%로 하락했다.

조달 금리 상승에도 카드사들이 수익성 방어를 위해 카드론 영업을 확대

하고, 정부의 포용 금융 기조에 대응해 저신용자 금리를 인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저신용자 대출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면서 금융권에 포용 금융 기조에 맞춰 중·저신용자 이자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은 지난달 6조719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6조7201억원)보다 6억원 가량 감소했다. 현금서비스 잔액은 6조996억원으로 같은 기간 734억원 줄었다.

반면, 대환대출 잔액은 지난달 1조4641억원으로 전월 1조3817억원보다 824억원(5.96%) 증가했다. 대환대출은 기존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새로 받는 대출을 뜻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수익 악화' 카드사, 희망퇴직 등 인력구조 재편

신한, 근속 15년 직원 희망퇴직 접수
전업 카드사 8곳, 외부 모집인력 감축
작년 3324명... 9년만에 85% 급감

카드사가 인력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로 비용 절감 필요성이 커진 데다 디지털 전환 본격화로 인력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이 요구되는 시점이란 분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최근 직급과 나이 제한없이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24개월 기본급에 근속 연수와 직급에 따라 최대 6개월치 급여를 지급한다. 지난 2024년 12월, 지난해 6월에

이어 세 번째 희망퇴직이다. 2024년에는 60여 명이 회사를 떠났고, 지난해 6월에는 100여 명이 퇴직했다. 퇴직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 희망퇴직 규모 역시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직 슬림화 차원의 조치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연령, 고직급 인력 비중이 업계 내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조직 인력 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빅테크 중심의 경쟁 구도 재편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카드사의 인력 구조 재편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란 분석이다. 비대

면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확산과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필요성이 맞물린 탓이다.

실제 여신금융업권은 올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기조를 내세웠다. 디지털 금융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란 판단 아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대응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실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금융혁신·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여신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강화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정규직

등 내부 인력뿐만 아니라 외부 카드 모집인 역시 인력 감축 대상으로 꼽힌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하나·롯데·비씨카드)의 카드 모집인은 지난해 말 기준 3324명으로, 2만 2872명이었던 지난 2016년 이후 약 85% 급감했다.

카드 모집인 감소 추세는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카드 모집인이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 절차를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주 골자다. /안재선 기자

하나은행

'AI 안부서비스' 도입

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AI 기반 맞춤형 전화 서비스인 'AI 안부서비스'를 도입하고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AI 안부서비스는 AI 목소리 '든든이'가 손님이 정한 요일과 시간에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음성 통화 서비스다. 특히, 별도의 기기나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손님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AI 목소리 '든든이'는 시니어들의 관심사와 생활 패턴을 반영해 맞춤형 대화 주제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손님에게 간단한 ▲건강관리 ▲제철 음식 ▲문화·여가 등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혼자 생활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손님에게 정서적 안정도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하나더넥스트 상담을 받은 손님 중 선착순 300여명에게 AI 안부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되며, 쿠폰에 안내된 웹 페이지를 통해 손님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LIG넥스원, '계약이행·신규수주' 날개... 실적 개선흐름 뚜렷

중동지역 제품 납품 본격화
드론 등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올해 예상 영업이익 4387억

LIG넥스원이 대형 해외 계약 이행과 신규 수주 확대를 바탕으로 실적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중동을 중심으로 한 해외 사업 확대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시장 내 입지도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의 올해 예상 매출은 4조895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67%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4387억원으로 35.8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아랍에미리트(UAE)항천공-Ⅱ 사업의 양산 납품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 관련 물량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적이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중동 3개국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해외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수출 매출이 1조2000억원에 달하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UAE 무인·자율 시스템 전시회 'UMEX 2026'에 마련한 LIG넥스원 부스 전경. /LIG넥스원

비중은 23.9%로 전년 대비 2.5%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도 LIG넥스원은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 4조3069억원, 영업이익 3229억원을 달성했고, 수주 기반도 확대됐다. 지난해 4분기 신규 수주는 약 4조1600억원으로 L-SAM 국내 양산, M-SAMⅢ 체계 개발, 전자전 체계 개발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25년 말 수주잔고는 26조2000억원으

로 전년 말 대비 31% 증가하며, 대규모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향후 수년간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사업 포트폴리오도 다각화되고 있다.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항공전자·드론, 전자전, 무인화·미래전 등 영역을 확대하며 종합방위산업체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유무인 복합체계와 차세대 전장 기술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확대, 단순 무기체계 공급을 넘어 통합 전장 솔루션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해외 시장 다변화 전략도 병행되고 있다. 유럽 사무소를 개설해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미국에서는 수출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활동을 지속한다. 동남아 지역에서도 협력 기회를 모색하며 신규 시장 개척에 나서는 등 중동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2024년 7월 미국 로봇기업 고스트로보틱스를 인수하며 4족 보행 로봇 기술을 확보, 현재 연결 실적 반영 초기 단계지만 무인·로봇 전장 체계 확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단기 수익성보다는 기술 내재화와 차세대 전장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행보라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중동 수출 물량이 계획대로 이행되면서 해외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며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현대차가 새롭게 선보인 포켓몬 디스플레이 테마 적용 모습.

현대차 "포켓몬과 운전 하세요"

파카츄·메타몽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현대자동차가 차량 실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색적이고 특별한 디스플레이 테마를 새롭게 선보인다.

현대차는 포켓몬코리아와 협업해 신규 디스플레이 테마 '포켓몬 파카츄 전광석화 테마', '포켓몬 메타몽 월드 테마'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테마를 적용하면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ccNC) 클러스터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운행 정보, 시동을 걸고 끝 때 나오는 애니메이션 등에 포켓몬 디자인이 적용된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포켓몬스터 테마는 마이현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표차량을 등록하고 현대차 블루링크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적용 대상 차종은 디올 뉴 팰리세이드, 아이오닉9, 디올 뉴 넥쏘, 더뉴 아이오닉6, 2026 쏘나타 디엡티, 더뉴 스타리아로 추후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확대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SDI, 리튬메탈 혁신기술 개발... '수명·안전' 성능 개선

컬럼비아대와 새로운 전해질 조성
'덴드라이트' 억제... 상용화 청신호

삼성SDI가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리튬메탈 배터리의 고질적 한계로 꼽혀 온 수명과 안전성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 에너지 밀도는 높지만 상용화 장벽이 높았던 리튬메탈 배터리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SDI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리튬메탈 배터리의 수명과 안전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해질 조성을 개발하는 데 성공

했다고 23일 밝혔다.

리튬메탈 배터리는 현존 배터리 기술 가운데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은 차세대 전지로 평가받는다. 기존 삼원계(NCM)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약 1.6배에 달해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로 꼽혀왔지만, 충·방전 가능 횟수가 수십 회 수준에 머물러 상용화에 제약이 있었다.

삼성SDI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팀은 '젤 고분자 전해질'을 적용해 이 같은 한계를 개선했다. 불소 성분을 활용한 젤 고분자 전해질을 개발해 음극 표면에 안정적인 계면을 형성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리튬메탈 배터리의 성능을 저해

해온 '덴드라이트'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연구가 차세대 배터리의 에너지 효율과 안전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접근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삼성SDI 연구소가 주도한 이번 연구 논문은 세계적 권위를 지닌 에너지 분야 학술지 '줄(Joule)' 최신호에 게재됐다. 줄은 세계 3대 학술지 '셀(Cell)'을 발행하는 미국 셀 프레스(Cell Press)가 2017년 창간한 에너지 전문 저널로, 해당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학술지로 꼽힌다.

논문에는 이승우 삼성SDI 연구소 부사장과 우현식 프로, 삼성SDI 미국 연구소(SDIRA) 김용석 소장과 양리(Yang Li)·위안위안마(Yuanyuan Ma) 프로, 컬럼비아대 위안 양(Yuan Yang) 교수 등이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주용락 삼성SDI 연구소장(부사장)은 "이번 논문은 기존에 취약점으로 지적되던 리튬메탈 배터리의 안전성을 개선한 기술이 학술적으로 검증받았는데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HD현대중, 필리핀 원해경비함 조기 인도 삼성전자, '뉴 갤럭시 AI 구독클럽' 선포

납기 일정보다 약 5개월 앞당겨

HD현대중공업은 최근 필리핀 해군으로부터 수주한 원해경비함 6척 가운데 첫 번째 합정인 '라자솔라이만함'을 납기 일정보다 약 5개월 앞당겨 인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인도한 원해경비함은 대잠수함 작전을 위한 음향탐지기를 탑재했으며 합정 내 다양한 미션 모듈 운용 공간을 확보해 해상 감시, 해양안보 임무, 군사 작전 등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HD현대중공업은 최신에 해군 합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필리핀 해군의 조기 전력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합정 사업에서 납기는 해군 전력화와 직결되고 국가 방위력 유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건조업체의 역량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HD현대중공업이 인도한 2400톤급 필리핀 원해경비함 1번함 '라자솔라이만'함. /HD현대

HD현대중공업은 합정 인도에 앞서 대한민국 해군의 협조로 사전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필리핀 해군이 합정을 인도받은 직후부터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필리핀 해군 원해경비함 조기 인도를 통해 HD현대중공업의 신뢰성과 납기 경쟁력을 동시에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후속 합정 건조와 인도를 통해 필리핀 해군 현대화와 안정적인 전력 운용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삼케플' 지원 등 편의성·혜택 강화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 고객을 위해 편의성과 혜택을 더욱 강화한 '뉴(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기존에 1년 사용 후 반납 시 삼성닷컴 기준가의 50%, 2년 사용 후 반납 시 기준가의 40% 등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던 가입 기간에 3년형을 새롭게 추가했다. 3년형에 가입한 고객에게 '삼성케어플러스 스마트폰 분실·파손' 상품을 36개월간 지원한다. 또, 3년 사용 후 반납하는 고객에게는 삼성닷컴 기준가의 25% 잔존가를 보장한다.

'삼성케어플러스 스마트폰 분실·파손'은 가입 기간 동안 ▲분실 보상 ▲파손 보상 ▲무상 수리 서비스 ▲배터리 교체 서비스 ▲방문 수리 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새로운 갤럭시 S 시리즈로 가입할 수 있는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1년형과 2년형의 월 구독료는 6900원이며, 3년형은 8900원이다.

삼성전자는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1·2·3년형 가입 고객에게 ▲피싱·스미싱·해킹·파밍 등 사이버 금융 범죄 피해 발생 시 최대 300만 원 ▲인터넷 직거래 또는 쇼핑물 사기 피해 발생 시 최대 50만 원의 보상 혜택 등을 추가 제공한다.

기기 반납도 편리하다. 가입 고객은 약정 기간 동안 기기를 사용 후 ▲전원 미작동 ▲외관 파손 ▲계정 미삭제 단말을 제외하면 생활 흡집이 있는 기기도 반납 가능하다.

또 구독 서비스 가입 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삼성전자서비스 센터에서 우선적으로 A/S 접수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삼성케어플러스 전용 창구'도 이용할 수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HMM 화주 대상 AI 챗봇 서비스

17개 언어 실시간 번역 기능 탑재

HMM이 화주를 대상으로 하는 생성형 AI 기반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며 고객 접점에서의 디지털 전환(DX)을 본격화한다고 23일 밝혔다.

HMM과 LG CNS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 기반 챗봇 서비스는 고객 경험(CX)을 개선해 화주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화주가 정확한 해운 용어나 복잡한 절차를 몰라도 상담원과 대화하듯 자연스러운 문답을 통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선박 일정, 운임 정보 등 정보 확인은 물론, 국가별 통관 절차, 복잡한 규제사항, 위험화물 운송 여부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업무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돕는다. 특히 전 세계 화주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17개 언어에 대한 실시간 번역 기능을 탑재했다.

HMM은 이번 챗봇 도입을 시작으로, 실제 고객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화주의 전체 비즈니스 흐름에 밀착한 디지털 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K-방산, 급성장에도 中企 조달 4514억 → 3593억 ‘뒷걸음’

韓 무기점유율 2.2%로 세계 10위 방산기업 매출 20.2조·영업익 9.2% 대기업 순익 935% ↑... 中企 61% 방산 매출 中企 비중 19.2% 수준

‘K-방산’의 몸집이 커지고 전 세계 시장에서 위치는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방산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 무기시장 점유율은 2008년 0.5%에서 2020~2024년에는 평균 2.2%까지 올라가면서 세계 10위에 올라섰다. 우리나라 방산기업 매출은 2020년 당시 총 15조3000억원 수준에서 2023년에는 20조2000억원까지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도 3.7%에서 9.2%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방산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갈수록 쪼그라 들고 있다.

국방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2022년 당시 4514억원이던 것이 2024년에는 3593억원으로 줄었다. 전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매출은 44.2%이지만 방산만 놓고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19.2%로 전체 평균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 수출 비중 역시 전산업에선 중소기업이 17.4% 수준이지만 방산분야에선 3.9%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19년 대비 2023년 현재 방산기업 순이익은 대기업의 경우 1488억원에서 1조 5398억원으로 935%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1195억→1928억원으로 61% 늘었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방산분야의 경우 최종 수요처인 군 정보 접근이 어렵고 소수 지정된 기업이 공급을 주도하는 생태계에서 혁신 스타트업의 신규 진입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폐쇄적 산업구조 속에서 성장 성과는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K

-방산 성장을 위해선 방산 중소기업, 스타트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와 방사청이 이날 발표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등 격차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방산 분야에서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상생수준평가의 경우 올해에는 15개사를 대상으로 방산 분야 실적을 중점 조사한다. 여기에는 한화오션,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효성중공업, 풍산, 현대위아, LS엠트론, SK오션플랜트,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상생 우수 기업에는 원가산정, 수출

절충교역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등을 추진할 때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해 적정 이익을 보장한 기업에는 방산 지원사업 참여를 우대한다.

방산 참여 중소기업·스타트업도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첨단산업분야 기술·제품 보유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개발 단계부터 군·체계기업과 협업해 군 소요에 기반한 기술검증, 연구개발(R&D), 양산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방산 스타트업 R&D 지원을 강화한다.

스타트업 윈스톱 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1곳을 가칭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방산·창업 지원의 오프라인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첨단 분야 스타트업이 제조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타트업 기술력과 방산 제조 중소기업의 M&A를 적극 지원한다.

지역 특화 산업 및 조선 산업과 연계해 클러스터를 신규 지정,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한진

에너지 물류시장 공략

배터리·신재생 운송 경쟁력 강화

한진이 이차전지를 비롯한 에너지 특화 물류 시장 추가 공략에 나섰다. 23일 한진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로부터 리튬 배터리 항공운송 품질인증(CEIV Lithium Batteries)을 획득하며 글로벌 수준의 안전 관리 체계를 공인 받았다. 이러한 전문 실적과 인증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수입부터 국내외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SCM 솔루션을 제공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24년에는 1800t에 이르는 이차전지 핵심 연료 리튬염 생산을 위한 ‘리튬염 제조설비 모듈’ 운송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대형 배터리 소재 설비 물류 부문에서 노하우를 입증하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얼음정수기’

하루 최대 약 1000개 얼음 생성

삼성전자가 하루 최대 8kg의 강력한 제빙 성능에 AI 기반 사용자 맞춤 기능을 갖춘 얼음정수기 신제품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얼음정수기’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하루에 최대 약 1000개의 얼음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무게로 8kg에 달한다.

‘비스포크 AI 얼음정수기’는 미국국가표준협회(ANSI)가 공식 승인한 정수기·음용수 실험 기관인 NSF 인터내셔널(이하 NSF)에서 공식 인증을 받은 ‘4단계 필터 시스템’을 적용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에코프로에이치엔

친환경 선박 기술 확보

MW급 암모니아 엔진 정화 시스템 개발

에코프로에이치엔이 메가와트(MW)급 암모니아(NH3) 선박 상용화를 위한 배기가스 정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며 차세대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에 나섰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HD한국조선해양, 한국선급과 함께 MW급 암모니아 엔진 정화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고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발은 2023년 해양수산부의 ‘선박배출온실가스(GHG) 통합관리 기술개발’ 국책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촉매 반응기 설계와 촉매 활성 온도 최적화, 배기가스 정화 성능 개선 등 후처리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미이크로웨이브(전자파) 촉매 가열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을 완성했다.

/원관희 기자 wkh@

타이어업계, 해외 거점 강화로 질적 성장 ‘승부’

북미 리스크 대응 공급망 경쟁력 강화 유럽 신공장 시험센터 현지화 전략 고인치 전기차 타이어 생산 확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국내 타이어 3사(한국타이어·금호타이어·넥센타이어)가 질적 성장을 위해 해외 생산 거점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타이어 업계는 통상 리스크로 북미시장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유럽, 중남미, 중동 등으로 공급망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미국 테네시 공장 증설을 마무리하며 북미 시장 대응력을 높였고, 금호타이어는 폴란드 신공장 건설을 확정하며 유럽 시

장 공략에 힘을 싣고 있다. 체코 공장 증설을 마친 넥센타이어는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현지 공략을 위한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북미와 유럽 현지 생산량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유럽 헝가리 공장의 생산능력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부터 테네시 공장 연 100만개, 2027년부터 헝가리 공장에서 연 80만개의 트럭·버스용 타이어를 추가 생산할 수 있다.

또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최근 헝가리 공장의 연간 전력 사용량의 약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글로벌 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 ‘골드픽스 캐피탈(GPC)’과 10년간 총 430GWh 규모의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했다.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넥센타이어는 현지화 전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핀란드 이발로에 위치한 겨울용 및 사계절 타이어 시험 센터인 ‘퍼플 스노우 이발로 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시험 센터는 유럽 최북단 북극권 인근 핀란드 이발로의 UTAC 주행 시험장 내에 조성됐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핀란드 시험센터 가동으로 매출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인 유럽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겨울철 3PMSF(Three Peak Mountain Snowflake) 인증 제품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어, 겨울용 타이어에 대한 기술 대응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북유럽 등 혹한 지역의 빙판길 주행을 위한 겨울용 타이어(스터드 타이어)의 내구성 평가 시험 트랙도 확보해 유럽 현지 겨울용 타이어 수요 증가에 더욱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폴란드에 연산 600만개 규모의 타이어 신공장 건설로 유럽 공략의 거점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금호타이어는 2028년 8월 가동을 목표로 총 5억 8700만달러(약 8600억원)를 투입한다. 또 중국·베트남 공장 증설로 글로벌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양성문 기자 ysw@

볼보, 플래그십 라인업 ‘럭셔리’ 강화로 입지 굳힌다

S90·XC90 하반기 판매 급증세 주행감·편의사양 대폭 강화 Car UX로 디지털 경험도 확대

볼보자동차코리아의 플래그십 라인업인 ‘S90’과 ‘XC90’이 상품성 개선을 거치며 수입차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있다.

23일 볼보자동차코리아에 따르면 볼보 S90과 XC90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상반기 대비 판매량이 각각 57.5%(415대), 95.5%(588대) 성장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상품성을 대폭 강화한 신형 모델을 출시한 후 실제 판매 증가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어내며 플래그십 시

장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우선 주행 감성과 편의사양을 과감히 확대한 것이 판매 성장을 이끌었다. 플래그십 세단 S90은 기존 최상위 트림에만 적용되던 후륜 에어 서스펜션을 주력 모델인 B5 울트라 트림까지 확대했다. 5090mm의 전장과 3060mm의 휠베이스가 편안한 거주성을 제공한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한 외관과 실내는 절제된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구현한다. 또 고품질 소재로 조합한 실내 공간은 ‘스웨디시 리빙룸’ 콘셉트를 반영했다.

플래그십 SUV인 XC90도 상품성을

대폭 강화하며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최첨단 안전 기술, 최상의 편의 사양 등을 하나의 패키지에 담아 볼보자동차가 정의하는 ‘스웨디시 럭셔리 플래그십’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새로운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와 범퍼, 보닛 디테일 수정을 통해 시각적 완성도를 높였다. B6 울트라 트림에 에어 서스펜션, 초당 500회 노면을 모니터링하는 액티브 새시 기술을 기본 탑재해 주행 안정성과 안락함을 확보했다.

실내에는 재활용 폴리우레탄 등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고 텍스타일과 우드 데



볼보자동차코리아 플래그십 SUV XC90(왼쪽), 플래그십 세단 S90.

코, 향상된 엠비엔트 라이트 등 고품질 소재를 결합해 안락함을 구현했다.

디지털 커넥티비티를 디지털로 진화시킨 점도 눈에 띈다. 볼보는 두 차량 모두 차세대 사용자 경험인 ‘볼보 Car UX’를 기본 탑재했다. 11.2인치 독립형 센터 디스플레이로 조작 편의성을 높였다. /양성문 기자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판교 IT업계 인재 쟁탈전... '그룹 보상'으로 새 판 짠다

모회사-자회사 간 성과급 기준 연동
네카오도 계열사 간 이동 유연화
프로젝트 성과 따른 그룹차원 보상

판교 IT업계의 인재 시장이 개별 법인을 넘어 '그룹 단위 보상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연봉과 스톡옵션, 장기 인센티브 설계가 계열사 전체 기준으로 묶이면서 채용과 이직의 기준 역시 '회사'가 아닌 '그룹'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23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판교에 본사를 둔 주요 IT·게임 기업들은 핵심 개발자와 AI 인력 확보를 위해 그룹 차원의 통합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 모회사와 주요 자회사 간 성과급 기준을 연동하거나, 그룹 공통 스톡옵션 풀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법인 단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보상 규모를 그룹 차원에서 흡수하는 구조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주요 기술 직군에



판교 테크노밸리 전경.

/최빛나 기자

대해 계열사 간 이동을 유연하게 운영한다. 인재를 한 법인에 고정하기보다, 그룹 내 프로젝트 단위로 배치하는 전략이다.

한 대형 플랫폼사의 인사 담당자는 "개발자들이 이제는 '어느 법인에 입사하느냐'보다 '이 그룹 안에서 어떤 프로

젝트를 경험할 수 있느냐'를 묻는다"며 "보상 역시 단기 연봉보다 장기 인센티브와 주식 가치까지 본다"고 말했다.

게임업계도 비슷하다. 넥슨과 크래프톤은 프로젝트 성과에 따라 그룹 차원의 보상을 설계한다. 흥행 타이틀이 나올

경우 개발 자회사뿐 아니라 주요 지원 조직까지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자회사별 손익이 명확히 같았지만, 지금은 대형 IP 하나가 그룹 전체 기업가치를 끌어올린다"며 "보상도 그룹 단위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AI 인재 확보 경쟁이 직접적 배경으로 꼽힌다. 대규모 언어모델, 클라우드, 커머스, 콘텐츠 등 복합 사업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인재에게 다양한 성장 경로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판교 소재 AI 스타트업 대표는 "대기업 그룹과 인재 경쟁을 하면 연봉만으로는 승산이 없다"며 "그들은 계열사 이동, 글로벌 프로젝트, 상장사 주식 보상까지 패키지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 갈등도 커진다. 계열사 간 처우 격차가 표면화되면서 일부 법인에서는 '본사 기준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

리가 노조 교섭 과정에서 제기된다.

한 IT업계 노무 전문가는 "동일 그룹 내에서도 핵심 사업과 비핵심 사업 간 보상 격차가 벌어진다"며 "그룹 단위 보상이 확대될수록 내부 형평성 이슈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벤처캐피탈(VC) 업계 역시 판교의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바뀌었다고 진단한다.

한 VC 파트너는 "이제 개발자들은 특정 법인이 아니라 네이비그룹, 카카오그룹처럼 '체급'을 본다"며 "주가와 글로벌 확장성, 투자 여력까지 보상 경쟁력의 일부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결국 판교 IT의 인재 시장은 연봉 협상 테이블을 넘어 자본시장과 연결된 구조로 진화할 전망이다.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그룹 간 체급 경쟁으로 옮겨가면서, 판교는 사실상 하나의 '그룹 단위 보상시장'으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SKT, 6G 통신 인프라 중장기 전략 제시

세 번째 6G 백서 'ATHENA' 발간
MWC26서 관련 기술 공개 계획

SK텔레콤이 중장기 네트워크 진화 전략을 담은 세 번째 6G 백서 'ATHENA(AI, Trust, Hyper-connectivity, Experience, open, Agility)'를 발간하고, 일부 관련 기술을 'MWC26'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발간된 6G 백서 시리즈의 최신판으로, 2030년 이후 본격 상용화가 예상되는 6G 환경을 대비한 통신 인프라의 진화 방향을 다뤘다. AI 융합 가속, 휴머노이드 로봇과 위성통신 확산, 보안 위협 고도화, 네트워크 운용 패러다임 변화 등 향후 통신 환경의 주요 변화를 짚고, 이를 토대로 운영 효율성과 고객 경험, 네트워크 수익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했다.

백서는 보안과 안정성, 품질을 네트워크의 기본 가치로 삼아 6G 시대 네트워

크 비전과 기술 진화 방향을 정리했다. 주요 비전으로는 AI 기술의 네트워크 통합, 제로 트러스트 보안, 5G·6G·위성통신을 아우르는 융합 인프라, 개방형 생태계, 가상화 기반의 유연한 네트워크 구조, 고객 경험 중심 설계 등이 제시됐다.

AI와 네트워크의 결합은 네트워크 운영 효율화를 위한 AI 활용과, AI 서비스 구동을 고려한 네트워크 설계라는 두 축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안 측면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적용해 네트워크 전반의 신뢰 구조를 재정의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또한 범용 하드웨어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개방형 구조와, 가상화 기술을 활용한 자원 활용 유연성도 주요 요소로 포함됐다.

SK텔레콤은 이러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네트워크 구조를 '아테나(ATHENA)'로 정의하고, 무선접속망, 코어망, 전송망, 네트워크 데이터 플랫폼 전반에 걸친 진화 방향을 제시했다.

무선접속망은 가상화와 개방형 인터

페이스를 기반으로 AI가 상태를 인지하고 최적화하는 구조로, 코어망과 전송망은 AI 기반 트래픽 관리와 이상 제어가 가능한 클라우드 중심 구조로 발전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네트워크 데이터 플랫폼은 통신망 데이터를 AI 서비스와 고객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하는 핵심 요소로 언급됐다.

백서 발간과 함께 SK텔레콤은 MWC26에서 AI 에이전트 기반 네트워크 기술, AI-RAN, 온디바이스 AI 기반 안테나 최적화, 통신·감지 통합 기술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3GPP, ITU 등 국제 표준화 기구 활동을 통해 관련 기술의 표준 반영을 추진하고, AI-RAN과 자율 네트워크 등 6G 핵심 기술에 대한 선행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회사 측은 향후 AI, 가상화, 개방화,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결합한 네트워크 진화를 통해 장기적인 통신 인프라 변화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seoh@

KT-노키아, AI 기반 빔패턴 최적화 검증

무선품질 향상 핵심 기술

KT가 글로벌 이동통신 장비 기업 노키아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빔패턴 최적화 기술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술은 기지국 커버리지 최적화 과정에 지역과 환경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AI를 적용한 것으로, 무선 품질 향상을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검증된 빔패턴 최적화 기술은 AI가 트래픽 흐름 등 다양한 네트워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빔패턴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빔패턴은 기지국 안테나가 신호를 어떤 방향과 세기, 폭으로 송출할지를 결정하는 신호 분포를 의미한다.

현재 상용망에서 널리 활용되는 mMIMO 기반 5G 기지국은 다수의 송·수신 안테나를 활용해 동시에 여러 사용자에게 서로 다른 빔을 전달한다. 이를 통해



KT직원들이 빔패턴 최적화 기술 검증을 진행하는 모습. /KT

통신 용량과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하나의 셀에서 수만 개에 달하는 빔패턴 조합이 가능해 최적의 패턴을 선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술은 AI 강화학습 기반 정책 개선 알고리즘을 적용해 방대한 빔패턴 후보군을 효율적으로 탐색하고, 최적의 결과만을 선별한다. 또한 주기적인 학습을 통해 시간대나 이벤트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빔 전략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서현 기자

LG U+, MWC26서 '익시오 프로' 공개

커뮤니케이션 보조 서비스 확장

LG유플러스가 'MWC26'에서 AI 통화 애플리케이션 '익시오(ixi-O)'의 확장 모델인 '익시오 프로(ixi-O Pro)'를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순한 통화 기록 기능을 넘어,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고 먼저 정보를 제안하는 커뮤니케이션 보조 서비스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익시오 프로는 사용자의 통화, 문자, 일정 등 일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황에 맞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AI 콜 에이전트다. 기존 익시오가 이용자의 요청에 반응하는 방식이었다면, 익시오 프로는 대화의 흐름과 관계를 인식해 필요한 정보를 먼저 안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사용자가 별도로 호출하지 않아도 이전 통화에서 언급된 일정이나 해야 할 일을 정리해 알려주거나, 통화 중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통화 과정에서의 정보 탐색 부담을 줄이고, 소통 효율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익시오가 스마트폰을 넘어 주거 공간, 오피스, 차량, 로봇 등 다양한 환경으로 확장되는 모습도 함께 소개된다. 장소와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연결되는 음성 기반 AI 에이전트로 진화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LG유플러스는 사람 중심 AI의 핵심 요소로 '인심'을 강조하며, 금융권과의

협업 사례도 공개한다. KB국민은행과 추진 중인 통신·금융 연계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는 통화 단계에서 탐지된 피싱 의심 정보를 금융 거래 이전에 활용하는 구조다.

익시오는 보이스피싱 의심 패턴, 악성 앱 설치 여부, 위험 URL 접속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관련 정보를 금융권과 공유한다. 금융사는 이를 이상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해 필요 시 계좌 지급 정지 등 보호 조치를 수행한다. 단순 경고를 넘어 실제 피해 차단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MWC26 전시를 통해 익시오가 이용자의 일상을 이해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글로벌 시장에 알릴 계획이다. 편의성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AI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김서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주차 풀 스택' 기술 수출

사우디 '다리아'에 전면 투입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우디아라비아 초대형 스마트시티 '다리아'에 통합 모빌리티 솔루션을 공급하는 유상 실증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기술 수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3일 디리아컴퍼니와 '다리아 프로젝트' 통합 모빌리티 솔루션 유상 PoC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양사가 체결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공동 개발 업무협약 이후 7개월 만의 성과다.

이번 계약은 단순 기술 제공을 넘어, 카카오 T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부터 운영 소프트웨어, 주차 인프라 데이터화까지 아우르는 '풀 패키지' 수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내 모빌리티 풀

랫폼 기술을 해외 현지에 직접 이식해 운영하는 첫 사례다.

다리아 프로젝트는 총 14㎢ 부지를 개발하는 대규모 도시 인프라 사업이다. 문화 유적지구 인접 1구역을 중심으로 지하 통행·주차 비중이 높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6만 대 이상을 수용할 주차 인프라 중 약 5000대 규모 3개 구역에 우선 솔루션을 구축한다. PoC 성과에 따라 전체 모빌리티 거점으로 확대 적용을 논의한다.

이번 실증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차 풀 스택' 기술이 전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AI 기반 수요 예측과 잔여면 예측을 통한 공간 최적화 ▲GPS가 닿지 않는 지하 환경에서도 가능한 실내 측위·내비게이션 등이 결합된다.

/최빛나 기자

8000 꿈꾸는 코스피... 강세장 지속 vs 시발 조정 우려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 목표치 상향
실물경기·주가 괴리 커 조정 의견도
AI발 경기 둔화·금리 변수 등 주의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23일 코스피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고쳐 썼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65% 오른 5846.09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19만 3000원(1.53% 상승)에 마감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95만1000원(0.21% 상승)에 마감한 SK하이닉스는 장중 98만 원선을 터치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업황 개선과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올해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잠재 성장률(2%)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실물 경기와 주가 사이의 괴리가 커 금리나 실적 등 변수에 큰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공지능(AI)발 경기 둔화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중론 또한 제기되고 있다.

◆노무라 “8000 이상도 가능”

국내의 증권사들은 코스피 목표치를 잇따라 올리고 있다. 신디 박·이동민 노무라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를 반도체(memory) 업종의 이익 확대를 반영해 7500~8000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두 연구원은 상향 조정 배경으로 범용 메모리 및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슈퍼 사이클, AI 설비 투자 밸류체인과 방위 산업 부문의 견조한 실적,

피지컬 AI의 밸류체인에 대한 재평가 등을 들었다.

특히 이들은 상법 개정의 실질적 이행,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개선, 주주권 보호의 후퇴 방지 등이 담보된다면 코스피가 8000선도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이 추가적인 주가 지수 상승을 위해 자본 효율성 개선과 중복 상장 이슈, 가족 중심의 제벌 지배 구조 등의 도

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장 높은 수치를 제시한 국내 증권사보다 높다. 하나증권은 지난 20일 국내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연말 코스피 상단 7900을 제시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주가수익비율(PER)을 고려할 때 이론적으로 현재 대비 74.8%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JP모건은 강세장이 유지될 경우 코스피 목표치를 7500으로 제시하는 등 공격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JP모건은 “지난해 세계 주요 시장 중 최고의 성과를 기록했던 한국 증시가 올해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 내에서 한국은 여전히 최선호 시장이고, 구조적 강세장의 초입”이라고 진단했다.

씨티그룹도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5500에서 7000으로 상향 조정했다.

NH투자증권(7300), 유안타증권(7100)도 눈높이를 올렸다.

◆반도체 편중, 과열 우려

그러나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AI 투자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자극하지만, 장기적으로

는 고용과 소비 위축을 초래해 경기 불안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DB증권은 최근 코스피 전망치를 기존 4500~5500에서 4300~5700으로 조정했다. 강현기 DB증권 연구원은 “인공지능(AI) 시설 투자가 늘수록 고용이 안 좋아지고, 소비가 줄어 경기 불안이 커진다”며 “그러면 회사채 발행이 위축되고, AI 투자도 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휴대전화·노트북 등도 비싸지는 ‘AI플레이션’이 발생해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더 어려워지고, 이 또한 회사채 발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코스피의 변동성 확대는 AI 수익성 논란과 맞물려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코스피 시가총액의 40%가량이 쏠린 상황에서 AI 관련 불안이 생길 때마다 외국인 이 팔고, 개인은 저가에 사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기준금리 등 대외 변수로 인한 변동성 확대에 코스피 상승 체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EQT, 더존비즈온 공개매수로 상장폐지 추진 ‘KODEX 증권’ 1년 수익률 293% 기록

성공시 자사주 제외 100% 확보
투자금 회수 위한 자본 먹튀 의견
더존비즈온 경쟁력 흠집 우려도

외국계 사모펀드(PEF)로 주인이 바뀐 국내 최대 전자적자원관리(ERP) 회사 더존비즈온이 국내 증시를 떠난다. 시장에서는 PEF의 냉혹한 세계가 재조명되고 있다. 생존 여부를 놓고 운명의 갈림길에 있는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이자 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의 책임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상장폐지 사례란 점 때문이다.

◆증시 떠나는 더존비즈온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EQT는 23일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업체 더존비즈온의 잔여 지분 전부를 공개매수로 취득해 상장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주식은 약 57.7%이며 가격은 주당 12만원이다.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다.

공개매수 가격은 한국거래소 기준 공개매수일 직전 1개월, 2개월 3개월 및 12개월간의 평균 증가(거래량가중 평균가격)에 각각 32.6%, 32.4%, 32.3%, 55.3%의 프리미엄을 적용한 수치다.

이는 2020년 9월 이후 최고가로,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수익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EQT는 설명했다.

EQT는 “공개매수 가격은 한국거래소의 전 영업일 증가 대비 25.0%라는 높은 수준의 프리미엄이 가산된 금액으로, 소액주주도 최대주주와 동일한 가격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더존비즈온의 상당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QT는 지난해 11월 더존비즈온 주식 1096만 4909주(34.8%)를 1조 3158억 원에 인수하는 SPA를 체결했다.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김 회장 지분 23.2%와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의 지분 14.4%를 모두 사들이기로 했다. 더존비즈온은 235만 4110주의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 이번 공개매수가 성공하면 EQT는 자사주를 제외한 100%(발행주식의 92.5%)를 확보할 수 있다. 자발적 상장 폐지를 위한 최소 지분율은 95%다. EQT가 더존비즈온 인수를 위해 투입하는 총 금액은 3조 5000억 원에 달하게 된다.

◆자본 먹튀인가, 시장 논리인가

시장에서는 PEF 등 외국계 자본이 인수한 기업의 자진 상장폐지 시도를 두고 굵지 않은 시선이 쏟아진다. 상장폐지가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서다.

외국계 PEF 운용사 에피티에쿼티파트너스가 2017년 인수한 생활용품 업체 락앤락은 지난 2024년 자진 상장폐지했다. 그런데 락앤락은 2023년 18년 만에 영업손실을 기록하긴 했어도 상장폐지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2021년엔 사상 최대 매출·영업이익을 올리기도 했다. 피해를 본 소액주주 사이에선 PEF 운용사가 투자금 회수만을 목표로 각종 공시 의무와 책임경영을 회피한다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쌍용C&E와 제이시스메디칼도 상장폐지 때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 쌍용C&E는 국내 PEF 운용사 한앤컴퍼니, 제이시스메디칼은 외국계 PEF 운용사 아카데미가 경영한다.

이는 PEF의 구조 때문으로 지적된다. PEF는 투자자로부터 얻은 자본을 기업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고 그것을

배분하는 식으로 운용된다. 익명을 원한 PEF 업계 전직 관계자는 “PEF 운용사엔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위해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 전략 수립은 상대적으로 후순위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PEF 운용사에 ‘기업 사냥꾼’ 또는 ‘먹튀’(먹고 튀다)의 준말) 등 달갑잖은 수식어가 붙는 이유도 그래서다.

시장에서는 국내 최대의 ERP업체인 더존비즈온의 경쟁력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한다. 홈플러스 꼴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MBK파트너스가 디지털 전환 등 장기적 관점의 투자에 소홀하면서 그사이 급성장한 쿠팡 등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와의 경쟁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 경쟁 상대인 이마트나 롯데마트도 비슷하게 겪은 상황이지만 홈플러스의 디지털 전환이 더 늦었고 타격도 그만큼 컸다. 기업 회상 절차를 밟는 홈플러스의 운영 점포 수는 2024년 126곳에서 이달 111곳으로 줄었다. 여기에 납품 대금 지급이 밀려 매대는 비어가고, 두 달 연속 직원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데다 긴급 운영자금(DIP) 대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의 운명은 갈림길에 놓였다. 회생 절차 개시 1년이자 법정 관리 시한인 다음 달 4일 회생계획안의 폐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다.

한편, 에코마케팅의 상장 폐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외국계 PEF인 베인캐피탈이 지난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에코마케팅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약 81%까지 끌어올렸다.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자산운용, 전체 ETF 중 1위

삼성자산운용은 ‘KODEX 증권’ ETF의 최근 1년 수익률이 292.8%를 기록하며, 레버리지형을 제외한 전체 상장 지수펀드(ETF) 중 1위에 올랐다고 23일 밝혔다. 연초 이후로도 99.4%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반도체 등 기존 주도 업종의 성과를 상회하고 있다.

KODEX 증권 ETF가 이처럼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배경으로는 코스피 5000 돌파에 따른 거래 급증이 꼽힌다.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가 급증하면서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KODEX 증권 ETF는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투자,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 국내 증시를 이끄는 주요 증권주들을 고르게 편입하고 있다. 연초 이후 개



인 누적 순매수는 1358억 원에 달하며, 특히 지난 19일 하루에만 652억 원의 개인 순매수가 유입되어 전체 ETF 중 개인 매수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KODEX 증권의 순자산은 9468억 원에 기록하며 1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증권 섹터 ETF로서는 이례적인 규모로,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증권주가 포트폴리오의 필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하은 기자

미래에셋 TIGER 증권, ETF 수익률 1위

연초 이후 수익률 101.7%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증권 상장지수펀드(ETF)’가 레버리지를 제외한 국내 상장 ETF 가운데 연초 이후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9일 종가 기준 TIGER 증권 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01.7%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37.8%) 63.9% 상회하는 성과로, 레버리지를 제외한 국내 상장 ETF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증권업종은 국내 주식시장이 리레이팅(재평가) 국면에 진입하면서 대표적

인 수혜 업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증시 전반의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있고 증권사 고객예탁금은 10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동월 대비 하루 평균 거래대금도 339% 증가한 62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거래대금 증가는 증권사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 확대에 이어져 실적 개선 기대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증권 업종을 중심으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 등 환원 정책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허정윤 기자

초과 연장근로에도 수당은 없었다 노동부, 위반업체 49곳 무더기 적발

교대제 제조업 사업장 45곳 점검
전 사업장서 243건 법 위반 적발
항공사 4곳서도 18건 위반 확인
해당 업체들에 시정지시 등 내려

교대제를 운영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근로 계획감독 결과,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대제 제조업 사업장 45곳을 대상으로 한 계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계획감독은 장시간 노동이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진행됐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등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사업장을 선별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분야를 함께 들여다봤다. 그 결과 45개 전 사업장에서 총 243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현행 주 최대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곳은 24개소(53.3%)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1곳은 교대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었으며, 특히 야간 근무조에서 한도 초과 사례가 집중됐다.

에너지저장장치 제조사 A사의 경우 업종 전환 과정에서 생산 불안정을 이유로 159명(사무직 133명·생산직 26명)이 38주간 평균 4.7시간씩 연장근로 한도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고용노동부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않은 사업장도 29곳(64.4%)에 달했다. 체불된 수당 규모는 총 22억3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5곳(11.1%) ▲보건·건강관리 조치 미이행 24곳(53.3%) ▲안전보건교육·관리체계 미이행 29곳(64.4%) 등 산업안전 분야 위반도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전액 지급을 명령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산업안전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절차에 착수하고, 총 1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항공사에 대한 계획감독에서도 위반

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7~8월 '익명제보센터'에 객실 승무원 근로기준 위반 제보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항공사 4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4개 사업장 모두에서 총 18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3곳은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1곳은 기간제 승무원에게 비행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차별 사례가 있었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승무원의 시간외 근로 한도 초과도 2곳에서 적발됐다.

노동부는 해당 항공사들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객실 승무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 행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노동부는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장시간 근로감독대상을 200개소로 확대하고, '위라벨+4.5 프로젝트'를 통해 자율적 개선에 나서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의 장려금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교대제와 심야 노동, 특별연장근로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를 분명히 확인한 만큼, 이를 개선하는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기후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대비

'전력계통 혁신대책 TF' 출범 회의

향후 5년 내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수용을 위한 '전력계통 혁신대책'이 올해 수립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24일 서울 비즈센터 5호점에서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열기 위한 '전력계통 혁신대책' 전담반(TF)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후부는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지산지소형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지역 간 유통선로를 보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다만 신규 송전선로는 건설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전력망 제도·운영·건설 전 분야의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우선 제도 분야에서는 계통 여건을 고려한 권역별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계통 지도를 마련한다. 또 수도권 등 계통 여유 지역 내 재생에너지 신속 보급을



경기 화성시 송산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 /뉴시스

위한 계획 입지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재의 선착순 선점 방식의 계통 접속 방식을 개선한다.

운영 분야에서는 기존 전력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력망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 유연접속을 확대한다. 아울러 '전력망 비증설대안'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건설 분야에서는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력망 건설 물량 대응을 위한 건설 방식을 다변화한다. 또 국가기간방 경과지 주민 태양광 사업 지원 등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중부발전, 보령에 수전해 수소기지 착공

2.5MW급 규모... 年 395톤 수소 생산

한국중부발전이 충남 보령에서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 시설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석탄발전소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연계형 수소를 생산하는 모델로, 에너지 전환의 상징적 사업이라는 평가다.

중부발전은 23일 충남 보령시 신보령 발전본부 내에서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충청남도·보령시와 함께 현대엔지니어링, 테크로스워터 앤에너지, 아이에스티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한다.

사업 규모는 2.5MW급이다. 물에 전기를 가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방식으로, 완공 시 연간 약 395톤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소' 약 7만9000대를 완충

할 수 있는 물량이다. 생산된 수소는 보령시 내 수소충전소에 직접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현대자동차와 협력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고분자 전해질막(PEM, Proton Exchange Membrane) 수전해 설비를 도입, 실증에 나선다는 점이 주목된다. 중부발전은 국산 수전해 기술의 성능과 경제성을 입증함으로써 외산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의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부발전과 현대차는 전략적 협업을 통해 보령시 수소충전소에 전국 최고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한 수소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타 지역 수소차 이용객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내 식량·관광 등 연관 산업 소비를 촉진하는 등 수소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계란 가격 전주比 15%↑

계란 한판 당 1000원 할인 연장

계란 생산량이 전년보다 감소하면서 설 연휴 후에도 전주보다 가격이 15% 상승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까지 계란 한판 당 천원씩 할인 지원을 연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6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채소류는 전반적으로 공급 여건이 충분하고 가격도 낮은 수준을 보여 당분간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달 평균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출하량이 늘고, 도·소매가격에도 순차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2~18일 주간 기준 특란 30개 가격은 6954원으로 전주 대비 15.0% 상승했다. 정부는 설 할인지원 종료 이후에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4일까지 30구당 1000원 할인 지원을 연장한다.

이날 회의부터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한다. 각 부처는 가격 상승 정도, 민생 영향, 독과점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점검 폭목을 선정하고 상반기 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진청, 온실 빛 보충 기술로 딸기 생산량 안정화 돕는다

'광량 보상 동적 보광 시스템' 개발
흐린 날 광 확보량 최대 3배 늘어

온실 내부 빛의 양을 자동으로 보충해 주는 기술이 개발됐다. 이는 딸기 시설재배 농가의 저일조 피해를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은 온실 내 부족한 빛을 자동으로 보완하는 '광량 보상 동적 보광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에서 효과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비와 흐린 날이 잦아지면서 온실로 유입되는 자연광이 감소하고 있다. 딸기의 경우, 개화기와 초기 생육 단계에서 일조량이 부족할 경우 수확이 지연되고 출하 물량 감소로 이어져 농가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전남 담양의 일조시간은 411.1시간으로 평년대비 20% 줄었고 딸기 출하량도 37% 감소했다.

보광 시스템은 온실 내부 광도를 센서로 실시간 측정해 목표 수준에 미달할 경우 발광다이오드(LED) 보광등을 자동으로 가동하는 방식이다. 자연광이 충분할 때는 조명이 꺼져 에너지 낭비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딸기를 고르고 있다. /뉴시스

최소화할 수 있다.

충남 논산 농업기술센터 실증 온실에서 '설향' 품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험 결과, 시스템 적용구역의 하루 평균 광도는 대조구역보다 45% 높았고 일적산 광량도 44% 증가했다. 흐린 날에는 광 확보량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광 환경 개선은 생육과 수확 시기에 도 영향을 미쳤다. 적용 구역의 딸기는 첫 개화가 8일, 첫 수확은 16일 빨라졌으며 12월부터 1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대조 구역보다 23% 증가했다.

농진청은 이번 기술이 저일조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생산을 가능케 해, 출하 시기 조절과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해수부, 10년 만에 국내 해양지도 개편

지도 확대, 12단계로 세분화
수시 갱신, 지도 종류 단순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바다 지도 서비스를 새로 개선해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해양공간 정보포털 '개방해(海)'와 해양안전 앱 '안전해(海)'에서 지원한다.

우선 지도 확대 단계를 기존 10단계에서 12단계로 세분화해 수심 정보와 해저 장애물 등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항로표지 등 해양정보 갱신주기를 기존 분기 단위에서 수시로 전환했다. 이용 빈도와 활용성을 고려해 지도 종류를 기존 7종에서 ▲기본맵 ▲전자해도 ▲영상지도 등 3종으로 단순화해 이용 편의성과 제작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바다지도에 직접 수록돼 있던

항로표지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 분포하고 위치 변경도 잦아 지도의 가독성이 떨어지고 최신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항로표지를 별도 아이콘으로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정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방해는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바다지도와 해양공간 계획 정보, 해양공간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국가 해양공간 정보 통합 플랫폼이다. 안전해는 각종 해양활동에 필요한 해양 안전 정보 및 긴급 신고 기능을 제공하는 해양 안전 앱이다.

개방해와 안전해는 현재 350여 개 이상의 공공·민간 웹과 모바일 앱에서도 연계·활용되는 대표 바다지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10년 만에 이뤄졌다. /세종=김연세 기자



대한홍삼(주)

건강창업의 모든 것!

BH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헛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창업문의 : 1522-7585**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헛터그룹
Haetter Group

(주)헛터
(주)헛터방송_브레인TV
(주)헛터라이프_헛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경북도, 동부권 5개 시군과 정책연계 강화

도-시군 통합발전 구상 정책협의회 이차전지 육성, 저탄소 철강특구 등 시군 직결 특례 다수 반영 강조 지역 맞춤 발전으로 경쟁력 ↑



지난 20일 포항시청에서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동부권 5개 시군 기획부서장과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통합발전구상 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0일 포항시청에서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동부권 5개 시군 기획부서장과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통합발전구상 정책협의회'를 열고 권역별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22개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도정 기조인 '민생·현장·연합'에 맞춘 특화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군 순회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0일 북부권 회의에 이어 이날은 동해안권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경북도는 '첨단산업 메가테크 연합도시', '세계역사문화관광 수도' 등 올해 도정 방향을 설명하고,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자치권 강화와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문화관광, 도시개발 등 행·재정 권한 확대 방안이 소개됐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 육성,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원자력 및 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 조성, 해양플랜트 산업 클러스터 구축, 수산자원 개발, 지방관리항만 지원, 울릉군 규제자유특구 지정, 국가어항 지정과 지방어항 지원, 섬 주민 물류 지원 등 동해안 시군과 직결된 특례가 다수 반영됐다는 점이 강조됐다. 도는 이러한 특례가 동부권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인공지능, 첨단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등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행·재정 지원을 이끌어내고, 경제자유구역과 모빌리티 특화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10개 정책특구가 의제된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특례를 동해안권 핵심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기 위해 도-시군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시군별 현안도 집중 논의됐다.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 경주 세계 10대 관광

도시 조성, 영덕 강구 연안항 확대 개발, 울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울릉 에너지 확충과 전환 사업 등 주요 과제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과 중앙부처 대응 전략이 공유됐다.

경북도는 동부권 5개 시군의 주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공동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 사업화와 예산 확보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 특별법 특례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발전구상을 구체화해 동해안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앞으로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해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해결 방안 마련, 예산 확보 전략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안성렬 경북도 정책기획관은 "시군과의 정책 연계를 강화해 지역 밀착형 과제를 발굴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여겠다"며 "행정통합에 대비한 권역별 발전구상에도 각 시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구경북의 균형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 입학준비 돕는다

경남도교육청이 저출생 위기 극복과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6학년도 초·중·고 및 특수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다자녀 가정 입학 준비물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도내 두 자녀 이상 가구의 입학생 1인당 30만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경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카드'에 적립하는 형태다. 이 카드는 농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발급된다. 교육청은 이번 지원으로 약 6만 6000명의 신입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이도식 기자

경북문화관광공

단체 여행객 버스 임차비 혜택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경북도를 찾는 단체 여행객 유치를 확대해 도내 관광지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버스타고 경북관광'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30인 이상 단체가 경북 관광지 및 지역 축제장, 전통시장 등을 방문할 경우 버스 임차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9년부터 시행 중인 단체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기관, 일반 단체, 여행사이며, 여행 지역 내에서 숙박비·식비·입장료 등 30만원 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버스 임차비는 출발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경북·대구권은 60만원, 수도권 서울·인천·경기는 80만원, 기타 지역은 70만원이 지원된다.

/경북=김진곤 기자

전남도, 해양관광 405만 시대 연다

2030년까지 총 3조1553억 투입 생활 인구 7500만명 달성 목표도

전남도가 2030년까지 총 3조1553억 원을 투입, 해양관광객 405만명·생활 인구 75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해양관광 활성화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전남은 국내 최대 해양관광 자원이 있지만 당일 관광 중심 구조인 탓에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한계가 있어, 전남도는 '바다와 섬이 미래가 되는 해양관광 선도 전남'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체류형·소비형 관광 구조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해양관광 기반 확충을 위해 여수 무술목 일원에 1조980억원 규모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고, 보성·순천과 신안·무안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을 구축한다.

섬 고유의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특화 관광거점을 조성해 방문이 소비로 이어지는 관광 기반도 마련한다.

해상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섬 관광의 진입장벽인 운임 부담을 완화하는 일반인 여객선 반값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번에 가능한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과 수요응답형 해상교통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 분야에서는 섬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관광 모델을 발굴하고, 무인도 탐방 인프라와 요트 기반 아일랜드 호핑투어 등 차별화한 해양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설 연휴 경주 찾은 관광객 31% 늘어

양동마을 방문객 전년비 221% ↑

설 연휴 기간 경주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주요 관광지 및 도심 명소를 중심으로 방문객이 증가했고, 교통 이용 방식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22일 경주시에 따르면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동궁원, 양동마을, 경주시 사적관리사무소 집계를 기준으로 집계한 주요 관광지 입장객은 총 8만 79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 대비 31% 증가했다.

관광지별로는 동궁과 월지가 3만 87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천마총 2만321명, 동궁원 1만6975명, 양동마을 4004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계

문화유산 양동마을은 전년 대비 221%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족 단위 방문 확대와 체험형 관광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도심권 유동 인구도 증가세를 보였다. 경주시 무인 계측기 집계 결과 연휴 기간 주요 지점 방문객은 41만1961명으로 전년보다 15% 늘었다. 이 가운데 황리단길 방문객은 27만536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치는 연휴 기간 누적 기준이다.

불국사 방문객도 증가했다. 경주시가 불국사 관광안내소 집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닷새간 방문객은 8만8226명으로 지난해보다 8% 늘었다. 이 중 외국인인 5824명으로 집계됐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칠곡군, 20년 방치 건축물 철거 돌입

복삼읍 미관저해 JK아파트 정리



2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온 복삼 JK아파트 전경.

공사 중단 이후 20년 넘게 방치돼 온 복삼 JK아파트가 철거 절차에 들어가면서 칠곡군의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정책이 본격화됐다. 주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저해해 온 흉물 건축물이 정리 단계에 접어들며 복삼읍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복삼읍 중심부에 위치한 JK아파트는 2000년 사업 승인을 받아 지상 15층, 247세대 규모로 추진됐으나 2003년 공정을 약 6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안전 우려와 경관 훼손, 생활 불편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복삼읍거리 인근에 자리해 읍내 중심 이미지를 저해한다며 주민들 사

이에서는 해당 건축물 정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철거가 완료되면 해당 부지에는 180면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주차 공간 확보로 상가와 주거 지역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칠곡(경북)=김준한 기자

하동군, 빈집 활용 '그린 홈 어게인' 추진

창업·공유공간으로 재생해 청년·전입희망자에 기회 제공

하동군이 방치된 빈집과 마을 공동 창고를 활용해 인구 유입과 지방 소멸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사업에 나선다.

하동군은 올해 '별천지 하동 빈집 매력화(그린 홈 어게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빈집과 마을 공동 창고를 에너지 효율을 갖춘 주거 공간과 창업·공유 공간으로 재생해 청년과 전입희망자에게 주거·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방식은 빈집과 마을 공동 창고를 소유자에서 군이 무상 임대받아 6년간 공공임대로 운영하는 뒤 반환하는 구조다. 사업량은 빈집 4개소, 마을 공동 창고 1개소이며 사업비는 빈집 개소당

최대 7000만원, 마을 공동 창고 개소당 최대 2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이 있는 빈집·마을 공동 창고로, 빈집은 전국 빈집 실태 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른 1~2등급이어야 한다. 입주대상자는 인구 소멸 지역 외 지역에서 하동군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 또는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를 중심으로 선발한다.

마을 공동 창고의 경우 마을회 소유 창고를 개·보수해 지역 활력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사업 주체도 함께 모집한다. 사업자 선정 후에는 태양광 설치, 고효율 난방방기 도입, 단열재 보강 등 성능 개선을 중심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도

위기 가구 발굴·복지 연계

경남도가 3월 위기아동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위기 아동과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앞서 도는 2024년 11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가족돌봄청년 의식 사례 데이터 8373명을 활용해 실태 조사를 진행했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왔다. 단전·단수 등 47종 위기 정보를 활용한 위기 가구 발굴과 복지 서비스 연계도 상시 추진하고 있다.

위기 아동 지원도 병행한다. 0~12세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드림스타트 사업은 연 2~4회 가정 방문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 연계로 지속 관리하고 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방한 관광객 2000만 시대 눈앞... 백화점, 外人 모시기 총력

백화점 3사, 외국인 '매출 견인'

원화 약세에 명품 구매 이등
준절·무비자 효과로 매출 급증
멤버십·환급·간편결제 등 경쟁
美·유럽·동남아 고객 비중 확대

백화점 업계가 늘어나는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에 힘입어 지난해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관광객 증가와 환율 영향으로 외국인들의 백화점 쇼핑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백화점 업계는 프로모션을 통해 외국인 유치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주요 백화점 3사는 나란히 호실적을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연결기준 총매출 8조4630억원, 영업이익 504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6%, 27.7% 성장했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매출 7조4037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현대백화점은 영업이익 3782억원으로 전년 대비 33.2% 뛰었다.

이러한 실적 대박의 중심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있다. 롯데백화점의 지난해 외국인 매출은 7348억원으로 2016년 이후 최대치를 달성했으며 올해는 1조원 돌파를 내다보고 있다. 현대백화점 역시 외국인 매출이 전년 대비 25% 늘어난 7000억원을 기록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외국인 매출이 2023년 대비 3.5배 늘어난 6000억원대 중반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층 텍스리펀 라운지에서 입장을 대기하는 외국인 고객들의 모습.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롯데백화점

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만 900억 원을 돌파하며 월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올해 초 설날과 겹친 중국 춘절 연휴(2월 15~23일)에는 '춘절 특수'가 폭발했다. 무비자 입국 허용 확대와 맞물려 최대 19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방한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백화점들은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롯데백화점은 춘절 프로모션 기간(13~18일) 중화권 고객 매출이 전년 대비 260% 급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냈다. 신세계백화점 주요 3개 점포(본점·강남점·센텀시티점)의 외국인 매출은 전년 대비 평균 276% 늘었고,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의 중

화권 고객 매출도 210% 치솟았다.

과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매출에 의존했던 것과 달리, 국적과 고객층도 다양화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2020년 7% 수준이던 미국·유럽 고객 비중이 지난해 14%로 두 배 뛰었고, 동남아 고객도 15%까지 늘어났다.

국적 다변화에 발맞춰 백화점 업계는 다채로운 프로모션으로 모객에 사활을 걸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외국인 전용 '투어리스트 멤버십 카드'를 선보이며 두 달 만에 2만5000건을 발급했고, 알리페이·위챗페이 결제 시 대대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 중이다. 신세계백화점은 글로벌 텍스프리와 협업체 환급 프로모

션을 진행하며 연내 외국인 VIP 전용 라운지도 신설한다. 현대백화점은 업계 최초로 유니온페이와 손잡고 모바일 간편결제인 애플페이를 도입해 결제 편의성을 극대화했으며, 한국을 경유하는 환승객을 더현대서울로 이끄는 'K컬처 환승투어'까지 선보였다.

백화점 업계에 외국인 고객이 몰리는 이유로 다양한 원인이 제기된다. 먼저 K-컬처 확산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며 방한 관광객 자체가 급증했다. 지난해 1898만 명을 기록한 외래 관광객 수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을 기록하는 원화 약세 기조 속에서 외국인들이 면세점 대신 백화점에서 명품 등 고가품을 구매하는 '면세 역전' 현상도 뚜렷해졌다. 백화점 전 매장 즉시 환급 시설, 글로벌 페이 결제 도입 등 쇼핑 편의성과 적극적인 유치 프로모션으로 외국인 고객을 끌어모으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한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최근 방한하는 외국인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을 넘어 팝업스토어나 유명 디저트 등 한국인들이 즐기는 문화를 똑같이 소비하길 원한다"며 "국내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백화점 업계에 중요한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CU

삼겹살데이 정육 초특가

26일~내달 3일 삼장 증정·33% 할인

편의점 CU가 다가오는 삼겹살 데이(3월 3일)를 앞두고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6일간 가성비 높은 냉장 및 냉동 정육 상품을 초특가에 선보인다.

CU는 고물가로 외식 대신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2023년부터 3월 3일을 삼각김밥 데이 대신 삼겹살 데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올해 행사에서 선보이는 정육 상품은 총 5종이다. 스페인산 냉동 대패삼겹살(800g)을 1만900원에, 500g 용량의 캐나다산 보리 먹인 삼겹살과 목살은 9900원에 선보인다. 1인 가구를 겨냥한 300g 한돈 삼겹살과 목살은 66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100g당 1980원~2200원 선으로 시중 최저가 수준보다 절반 이상 저렴하다.

풍성한 추가 혜택도 마련했다. 행사 상품 구매 시 2500원 상당의 사계절 삼장(170g)을 무료로 증정한다. 또한 자체 앱 포켓CU의 멤버십 정보무늬(QR)를 제시한 뒤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하면 33%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손종욱 기자



CU가 삼겹살 데이를 맞아 가성비 좋은 삼겹살을 선보인다. /CU

널담, '고단백 저당 네모바게트' 노브랜드 신규 론칭

고기능성 베이커리 라인업 가성비 채널서 대중화 겨냥

푸드테크 기업 조인앤조인의 프리미엄 고기능성 디저트 브랜드 '널담(Nuld am)'이 온라인상에서 품질 대란을 일으켰던 화제작 '고단백 저당 네모바게트 치즈올리브'를 이마트의 가성비 특화 채널 '노브랜드(No Brand)'에 신규 론칭한다고 23일 밝혔다.

널담은 최근 노브랜드 입점과 동시에 단기 입점 제품인 '슬랩'의 전량 완판은



네모바게트 치즈올리브. /널담

물론,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똥냥시예'와 '똥카롱'이 지속적인 인기로 압도

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번에 노브랜드 전국 매장에 입점되는 '널담 고단백 저당 네모바게트 치즈올리브'는 널담만의 독보적인 푸드테크 기술력이 집약된 고기능성 베이커리다. 제품 하나당 단백질 18g을 함유해 닭가슴살 한 팩 수준의 영양을 갖췄으며 당류는 단 2.2g, 식이섬유는 3.6g으로 설계되어 건강과 맛의 밸런스를 극대화했다.

특히 고단백·저당 제품은 맛이 없다는 편견을 깨고, 일반 베이커리와 다르지 않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쫄한' 식

감을 구현한 것이 핵심이다. 짭조름한 치즈와 고소한 올리브의 풍미가 조화를 이룬 담백한 맛 덕분에 온라인 출시 당시에도 초도 물량이 순식간에 매진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바 있다.

널담은 이번 노브랜드 입점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성공 방정식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하며, 건강한 디저트를 찾는 폭넓은 소비자층을 공략할 계획이다. 특히 가성비와 품질을 동시에 중시하는 노브랜드 고객들에게 널담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하겠다는 포부다. /신원진 기자 tree8834@

SSG닷컴

'시그니처 브랜드 워크'

27일까지 카테고리별 릴레이 특가

SSG닷컴이 오는 27일까지 시그니처 브랜드 워크를 열고 매일 카테고리별 인기 브랜드를 선정해 릴레이 특가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여행과 뷰티(23일), 패션(24일), 가전(25일), 스포츠(26일), 리빙(27일) 등 라이프스타일 분야 대표 브랜드 상품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고객들은 참여 브랜드별로 SS G머니 적립이나 카드 청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4일에는 빈폴 봄 패션 상품을 최대 60% 저렴하게 선보이며 25일에는 가전 슈퍼세일 행사가 열린다. 신세계물과 신세계백화점몰에서 디지털 가전 상품을 1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10만 원까지 할인되는 10% 쿠폰을 무제한으로 지급한다.

이어 26일에는 르무통과 나야키의 운동화 및 스포츠 의류 할인이 진행되며, 행사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리마트 구와 스타벅스 데스크 클릭션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손종욱 기자

이마트 노브랜드, 심으뜸 '꼬박꼬밥' 협업

고단백·저당 간식 7종 선보여 1000~4000원대 가성비 건강식

이마트 자체 브랜드 노브랜드가 유명 피트니스 크리에이터 심으뜸이 운영하는 건강셰이크 브랜드 꼬박꼬밥과 손잡고 고단백·저당 간식 7종을 출시했다.

이번 협업은 명절 연휴 이후 체중 관리에 나선 소비자들과 일상 속 건강 관리 트렌드를 겨냥해 기획됐다. 갈비맛 닭가슴살, 밸런스 단백질바, 마시는 그릭요거트, 미역국 및 매콤 트러플 짜장 맛의 얇은 면 등 총 7종으로 구성됐다. 전 제품은 이마트와 노브랜드 전문점, SSG닷컴에서 1000~4000원대 합리적

인 가격에 판매된다.

초기 시장 반응은 긍정적이다. 이달 첫선을 보인 마시는 그릭요거트 2종은 출시 열흘 만에 약 3만 개가 팔렸으며, 밸런스 단백질바 역시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저당 소스를 활용한 닭가슴살과 무살당 아사이볼 젤리 등 식사부터 간식까지 하루 식단을 한번에 짤 수 있도록 한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지난해 발표한 식품소비행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식품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건강이 꼽혔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GS25, 여에스더와 이너뷰티 2종 선택

'푸룬·글루타치온 스트롱샷' 출시, 내달 말까지 1+1 고차 증정 프로모션

편의점 GS25가 의과학사 여에스더와 협업해 이너뷰티 콘셉트의 액상 건강식품 2종을 단독으로 선보인다.

최근 편의점에서는 2030세대 여성을 중심으로 체형과 피부 관리를 돕는 건강 상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GS25의 지난 1월 관련 상품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32.6%나 증가했다. GS25는 다가오는 봄철을 맞아 이러한 소비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 온라인과 흡소핑 채널에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한 에스더포뮬러 신상품을 오프라인 편의점 단독으로 들

여왔다.

오는 25일 선보이는 신제품은 푸룬 트리플 스트롱샷과 글루타치온 스트롱샷 2종이다. 푸룬 트리플 스트롱샷은 유산균 발효 공법을 적용한 푸룬 추출 분말과 농축액 등을 함유해 원활한 배변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달콤한 자두맛 액상 제형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으며, 넉넉한 용량으로 구성됐다.

글루타치온 스트롱샷은 체내 흡수율을 높인 리포좀 글루타치온에 고품질 비타민C와 비타민B군을 배합해 항산화 관리를 돕는다. 섭취 편의성을 고려해 상큼한 레몬맛 액상 형태로 만들어졌다. /손종욱 기자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오송에 새 등지... 성과 창출 본격화

내달 4일 오프닝 세러머니·심포지엄
분산된 연구·개발 역량 통합하고
오가노이드 클러스터 구축 예정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오송생명과학단지 본사를 이전하며 판교를 넘어 '오송 시대'로 새로운 챕터를 연다. 지난해 12월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IND) 신청을 완료하며 상용화의 문턱에 들어선 직후 단행된 전략적 행보다. 회사측은 그동안 입증해 온 오가노이드 기술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시즌(Season)2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는 3월4일 충청북도 오송에 문을 연 새로운 본사에서 오프닝 세러머니를 갖고 'The next frontier beyond future(미래 너머 새로운 개척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본사 이전은 그간 분산돼 있던 연구·개발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원 사이트(One-Site) 통합'과 함께, 오송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에서 한 연구원이 연구를 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을 거점으로 국내 오가노이드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오가노이드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중장기 비전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이전을 통해 연구부문 관련 부서들이 집중 배치되면서, 부서 간 협업과 피드백 속도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중복 발생하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경상 비용을 절감해 비용 구조가 개선되면서 재무 건전성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절감된 재원은 R&D와 임상 개발에 재투자되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 바이오클러스터와의 연계로 새로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약품·의료기기 허가기관과 기업의 연구·생산 시설이 밀집된 곳이다. 입주 기업은 세제 감면, 인허가 신속 처리(Fast-Track), 국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송에서 새로운 오가노이드 산업의 중심지 '오가노이드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 대표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역량을 중심으로, 단지 내 제약사, 대학병원, 국책 연구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연구·임상·허가·생산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생태계를 주도하고자 한다"며 "기업들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책기관과 가까운 곳에서 임상 승인 및 인허가 과정에서의 소통 효율을 극대화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이번 본사 이전을 계기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시즌2'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장 질환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아톰(ATORM)-C'에 대한 IND 제출을 마치고 국내 임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

유 대표는 "그동안 시즌1이 오가노이드 기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시기였다면, 시즌2는 임상 성과를 통해 기업 가치를 입증하고 상용화를 현실로 만들어 가는 단계"라며 "주요 파이프라인의 IND 제출을 완료하고, 향후 임상 1/2상 진행을 통해 오가노이드 기술이 단순한 '플랫폼'이 아닌, 실제 '제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4일 개소식과 함께 열리는 'The next frontier beyond future'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모달리티로서 오가노이드 기술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충북 바이오헬스 비전과 연계한 미래 전략을 모색할 전망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중미 온두라스에 'BBQ 1호 매장' 문 연다

1분기 내 온두라스 내 4호점 추가
멕시코·칠레 등 아메리카 지역 확대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 그룹이 중미지역 온두라스에서는 처음으로 마스데발 플라자점을 오픈하며 북중미 권역에서 구축한 성공 모델을 발판으로 남미 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BBQ는 파나마·코스타리카 등 중미와 바하마·자메이카를 포함한 카리브해 권역에서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며 현지 외식 시장에서 K-푸드 대표 브랜드로 입지를 공고히 해왔다. 이는 단순한 해외 매장 확장을 넘어, 현지 소비 트렌드와 운영 환경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통해 K-푸드를 일상 소비 영역으로 정착시키며, 지속 성장이 가능한 해외 사업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BBQ는 지난해 말 온두라스 산페드



BBQ가 온두라스 산페드로술라(San Pedro Sula)시에 위치한 마스데발 플라자(Masdeval Plaza)점을 오픈했다.

/제너시스BBQ

로술라(San Pedro Sula)시에 위치한 마스데발 플라자(Masdeval Plaza)에 약 83평, 120석 규모의 매장을 처음으로 오픈했으며, 올해 1분기 내 온두라스에 4호점까지 추가 출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BBQ는 파나마와 코스타리카를 시작으로 바하마, 자메이카, 온

두라스 등 중미·카리브 권역에서 총 20여 개 매장을 운영하며 현지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BBQ는 콜롬비아 진출을 시작으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아메리카 전체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혼밥 늘며 구내식당 간편식 코너 '인기'

현대그린푸드 간편식 이용 28%
3년 내 라인업 1200종 이상 확대

현대그린푸드가 운영 중인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간편식 코너 이용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의 제조 역량을 앞세워 품목 수를 대폭 확대하자 간편식을 찾는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는 것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지난해 단체급식 사업장 전체 식수(식사 수량) 중 간편식 코너를 이용한 비중이 역대 최대인 28%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 간편식 코너 식수 비중이 4%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3년만에 7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혼밥 문화

와 더불어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헬스, 취미 등에 활용하려는 직장인들이 많아지면서 배식 줄을 길게 설 필요가 없는 간편식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간편식 식수 비중은 지난 2023년 처음 두 자릿수를 넘었고 현재는 전체 단체급식 고객 네 명 중 한 명이 선택하는 핵심 코너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현대그린푸드는 간편식 비중 확대에 대해 직접 제조하는 간편식 품목 수를 650종까지 대폭 확대한 게 주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색이 다양해지면서 간편식을 선택하는 비중도 빠르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현대그린푸드는 간편식 수요 증가에 발맞춰 간편식 라인업을 향후 3년 내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200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동아제약, 청소년 키 성장 돕는 건기식 선보

셀파렉스 '포텐셜 키성장' 출시

동아제약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셀파렉스에서 청소년 키 성장을 위한 '포텐셜 키성장'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셀파렉스 포텐셜 키성장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키 성장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산균발효글루코추출물(FGO)을 주원료로 활용한다. 유산균발효글루코추출물(FGO)은 인체적용시험에서 섭취군의 24주 후 신장이 대조군 대비 0.87cm 추가 성장하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이번 신제품은 '스트레스

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 홍경천추출물을 함유한다. 키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을 관리할 수 있다.

또 성장 발달이 활발한 청소년기에 필요한 비타민D와 비타민K를 비롯해 에너지 생성과 활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B군,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과 셀레늄 등을 담았다.

셀파렉스 포텐셜 키성장은 정제 2정과 액상으로 설계된 이중 제형을 처방한 것으로 하루 한 번 간편하게 섭취하면 된다.

/이청하 기자

유한양행 '비컴플' 시간대 별 컨디션 관리

유한양행은 고급 일상관리 브랜드 '비컴플'에서 '모닝샷', '오후샷', '굿나잇'을 공식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비컴플은 바쁜 현대인의 하루 컨디션을 시간대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비컴플 모닝샷'은 전날의 피로와 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제품이다. 밀키시슬과 홍경천 추출물을 함유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

'비컴플 오후샷'은 활기찬 하루를 위해 20종의 기능성 원료를 한 병에 담은 멀티비타민이다. /이청하 기자

"'달잠' 바디워시로 자기 전 힐링 어때요?"

아모레퍼시픽, 로션·미스트 등 구성

아모레퍼시픽은 바디케어 브랜드 해피바스에서 하루의 끝을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달잠' 제품군을 새롭게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달잠은 바디워시, 바디로션, 바디미스트 등으로 구성됐으며 성분과 향은 물론, 촉각 및 시각적 요소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밀키라벤더 향을 중심으로 마그네슘이 함유된 슬립토닌 성분이 피부 장벽, 진정, 보습 등을 개선한다. 특히 슬립토닌은 숙면을 돕는 트립토판과 테아닌을 처방한 것으로 '힐링 나이트 루틴(달콤한 잠 같은 포근함)'을 완성해 준다.

달잠 밀키라벤더 바디워시는 밤하늘의 오로라를 연상시키는 영롱한 펠 제



해피바스 '달잠' 밀키라벤더 바디로션

/아모레퍼시픽

향과 구름처럼 부드러운 거품이 시각과 촉각을 동시에 자극한다.

밀키라벤더 바디로션은 인체시험적용에서 4주 사용 후, 피부 스트레스와 붓기를 각각 51.8%, 31.7% 낮췄다.

/이청하 기자

LOTTERIA™

치킨버거의 근본을 세우다!

파이어핫

단품 6,900원
세트 8,900원

그릭랜치

단품 6,900원
세트 8,900원

두툼하다
두툼해!
침착맨'S PICK



깔레야 깔수 없는 무적의 치킨버거

통다리 크리스피 치킨버거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성료... 제이콥 브리즈먼 우승

제네시스 브랜드(제네시스)가 19~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진행된 '2026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승자 제이콥 브리즈먼, 호세 무노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네시스



BNK경남은행, 금융사기 범죄 예방·방지 팔 걷어

BNK경남은행은 양산금융센터와 양산경찰서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사기 범죄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필호 BNK경남은행 금융센터장(오른쪽)과 김종규 양산경찰서 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GS건설, '철원 두루미 탐조 가족프로그램' 운영

GS건설은 세계자연기금(WWF)과 함께 임직원 가족이 참여하는 '철원 두루미 탐조 가족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원도 철원 DMZ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열렸으며, 임직원과 가족 80여명이 참여해 DMZ 생태계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GS건설



정인욱학술장학재단, 배리어프리영화 제작 지원

삼표그룹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 최근 서울 광화문 본사 비즈니스센터에서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에 배리어프리영화 제작 및 상영 지원을 위한 기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유용재 사무국장(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인사

-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민간협력담당관 양용석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장 최준영
- ◆한국환경공단 ◇차·실장 인사 △대기환경사업단장 성기욱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최영준

부음

▲이재원(전 광주대 총장)씨 별세, 이진경(목포예담치과 원장)·장경(전 광주일고 교사)·회경(전남대 중어중문학과 교수)·윤경씨 부친상, 김완섭(남악힐링의원 원장)·서인환(현대건설 부장)씨 장인상=23일 오후, 빈소 광주 서구 천지장례식장, 발인 25일. 062-527-1000

설상종목 사상최고 성적... 대한민국 종합순위 13위

밀라노 동계올림픽 폐막

금메달 3개·은메달 4개·동메달 3개 최민정, 한국인 역대 최다메달 기록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17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23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베로나 아레나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사상 최초로 두 곳의 지명이 대회 명칭에 사용되었으며,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이탈리아 북부 전역에 분산 개최되는 등 새로운 시도가 돋보였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종합 순위 13위를 기록했다. 당초 목표였던 '금메달 3개 이상과 종합 순위 톱10 진입' 중 금메달 목표는 달성했으나, 종합 순위에서는 아쉬움을 남기며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직전 베이징 대회



22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베로나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쇼트트랙 김길리, 심석희, 이소연, 신동민, 이정민, 피겨스케이팅 이혜인 등 대한민국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금2, 은5, 동2)보다 전체 메달 수가 늘어났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전통적 강세 종목인 쇼트트랙의 저력과 설상 종목의 성과다.

쇼트트랙에서 김길리(성남시청)는 여자 1500m와 3000m 계주에서 우승하며 대한민국 선수단 유일의 2관왕에 올랐다. '살아있는 전설' 최민정은

계주 금메달과 1500m 은메달을 추가해 개인 통산 7개의 올림픽 메달을 달성, 한국인 역대 최다 메달 신기록을 세웠다.

그동안 동계올림픽의 불모지로 불렸던 설상 종목에서 사상 최고의 성적이 나왔다. 스노보드 10대 유망주 최가은(세화여고)은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손바닥뼈가 부러지는 부상 속

에서도 대역전극을 펼치며 한국 설상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김상겸(하이원)이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유승은(성북고)이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황금 세대'의 탄생을 알렸다.

경기장 밖에서도 낭보가 이어졌다. 봅슬레이 전설 원윤종은 IOC 선수위원 투표에서 1위로 당선되었으며, 김재열 ISU 회장은 IOC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한국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피겨스케이팅에서는 차준환(서울시청)이 남자 싱글 역대 최고 순위인 4위를 기록하며 세계 정상급 기량을 입증했다.

폐회식은 이탈리아의 자부심인 오페라를 테마로 꾸며졌다. 주세페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를 시작으로 '아이다', '나비부인' 등 유명 오페라 주인공들이 무대를 장식하며 예술적인 폐막을 선연했다.

/최규훈 기자 ch9720@metroseoul.co.kr

포스코퓨처엠, S&P CSA '멤버' 등급

(지속가능성 평가)

3년 연속 ESG 경영 성과 입증

포스코퓨처엠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의 '2026 지속가능 경영 연례 보고서'에서 멤버로 등재됐다고 23일 밝혔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 글로벌은 1999년부터 매년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별 성과와 위험요인 관리 수준 등을 종합해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SA)를 실시하고, 산업별 상위 기업을 선정·발표한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평가에서 글로벌 전기부품·장비 산업 내 상위 15%인 '멤버' 기업으로 선정됐다. 2024년에는 '멤버'와 '인더스트리 무버'에, 2025년에는 '멤버'에 선정되었고 올해도 '멤버' 등급을 받으며 3년 연속 ESG 경영을 인정받았다.

포스코퓨처엠은 탄소배출량 감축, 공급망 관리, 안전보건경영 강화 등



S&P 글로벌의 지속가능경영 연례 보고서 '멤버' 선정 엠블럼. /포스코퓨처엠

체계적인 ESG경영 활동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50년 탈탄소 달성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 저탄소 연료 전환, 공정효율 개선 등을 추진 중이며, 텅스텐, 코발트 등 인권침해의 문제가 없다고 인정받은 책임광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산하의 ESG위원회를 통해 ESG경영의 실행 계획, 이행현황을 감독하는 등 책임경영도 강화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오뚜기, '가족요리 페스티벌' 참가자 모집

내달 15일까지... 참가자 전원 선물

오뚜기가 오는 4월 25일 부산 영하의전당에서 진행되는 '제29회 오뚜기 스위트홈 가족요리 페스티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뚜기 스위트홈 가족요리 페스티벌'은 올해로 29회를 맞이한 국내 최대규모의 가족요리대회다. 지금까지 총 3600여 가족, 1만 35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가족이 함께 요리하며 소통하는 대표적인 가족참여형 축제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대회의 경연 주제는 '부산 대표 식재료와 오뚜기가 만나 선보이는

부산만의 스위트홈 메뉴'다. 지역 식재료를 활용해 오뚜기 제품과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인 가족요리를 선보이면 된다.

참가 가족은 총 100가족을 모집하며, 모집 기간은 2월 23일 오전 10시부터 3월 15일 오후 8시까지, 오뚜기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요리대회 참가 가족은 3만 원의 참가비가 있으며, 참가비는 한국심장재단에 전액 기부된다. 참가 가족 전원에게는 ▲키자니아이용권(4인, 서울·부산 이용 가능) ▲캘컾 기프트 등 다양한 선물 등이 제공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소진공 지원사업 고도화 방안 모색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이 경기 남부지역본부 찾아가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수원 남문시장·행궁동 일대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23일 소진공에 따르면 인 이사장의 지난 20일 현장 방문은 민관 협업을 통해 상생하는 우수 상권 현장의 성공 사례와 상인의 의견 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인 이사장은 경기 남부 지역본부를 방문해 핵심 주요 과제와 현안 사항 및 권역 내 상권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에는 수원 남문시장과 행리단길로 불리는 행궁동 일대를 방문하여 현장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사업 고도화 방안을 모색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크래프톤, 이강욱 신임 CAIO 선임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

AI 연구개발·중장기 전략 총괄

크래프톤이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CAIO) 직을 신설하고 이강욱 AI 본부장(사진)을 신임 CAIO로 선임했다. AI를 핵심 성장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적 선언으로 풀이된다.

크래프톤은 23일 CAIO가 회사의 AI 연구개발과 중장기 기술 전략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 기존 AI 본부 체계를 한 단계 격상해 전사 전략 단위로 끌어



올렸다는 의미다. 이강욱 신임 CAIO는 2016년 미국 UC버클리 전기컴퓨터공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19년부터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로 재직해왔다. 2022년부터는 크래프톤 AI 본부장을 겸직하며 학계와 산업 현장을 넘나드는 연구를 이어왔다.

/최빛나 기자 vitna@

동양, '위험성평가 바이블' 발간

실무 중심 안전보건 관리 강화

유진그룹 계열 동양이 레미콘 제조업 현장 특성을 반영한 실무 중심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위험성평가 바이블(BIBLE)'을 발간했다.

23일 유진그룹에 따르면 동양이 펴낸 지침서는 기존 위험성평가 활동의

한계를 보완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했다.

'위험성평가 바이블'은 중대재해 처벌법 판시 사례를 분석해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고 실무자가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김승호 기자

What Makes A Truly Comfortable & Trustworthy Sleep



50년을 지나, 이제 당신의 일상이 됩니다.

그랜드침대

편안함의 전통, 그랜드침대의 품격으로 완성됩니다.

www.grandbed.com / Tel. 031-945-2233



청년기본소득, 기본사회 향한 첫걸음



기 고
최성원
고양시의원

지난 2년, 고양시는 당사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실효성과 재정을 이유로 청년기본소득을 집행하지 않았다. 대안으로 일자리 정책과 취·창업 지원 정책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두 정책의 목적은 분명히 다르다. 일자리 정책은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로 하지만, 청년기본소득은 고용과 무관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청년기본소득의 효과를 단순히 사용처로 평가하는 시각 역시 한계가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 평가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은 다른 지역 청년에 비해 행복감, 건강, 인식과 태도, 경제 활동 등에서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청년기본소득의 핵심 효과는 단기 소비가 아니라 삶의 안정과 같은 비가시적 영역에 있다.

고양시의 논란은 결국 오늘의 한국 사회가 청년의 삶과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사회 안전망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복지 정책이 아니다.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라는 헌법 질서 위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시혜가 아닌 권리의 문제이다.

동시에, 최소한의 구매력을 보장해 지역 소비와 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경제정책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한 소득 이전이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투자다.

이 논의는 청년기본소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 사회는 일부 계층과 산업만 성장하는 이른바 'K자형 경제'로 이동하고 있으며, 격차는 개인의 노력 문제가 아니라 출발선이 달라진 구조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자산과 기술, 정보의 보유 여부에 따른 격차는 더욱 커지고, 사회 이동성은 약화되고 있다. 청년 세대의 불안은 개인이 아닌 구조적 불안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과 자동화의 확산은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이제 일자리 수만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망을 어떻게 설

계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사회로 인한 양극화에 대비해 기본사회에 대한 공감각이 확산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사회 논의가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과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본소득 정책은 아직 실험단계에 있다. 이 실험은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니라, 급속한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준비 과정이다. 지금의 정책 선택은 단기적 성과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사회 안전망을 결정짓는 선택이다.

기본사회는 특정 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가 아니다. 모든 시민이 삶의 최소한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의 재설계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바로 그 기본사회를 향한 첫 번째 정책적 실험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 불평등을 고려할 때, 기본사회를 향한 논의를 미룰 수는 없다. 기본소득은 새로운 사회계약을 향한 출발점이며, 기본사회는 그 위에서 함께 만들어가야 할 다음 단계의 사회이다.

/고양시의원

다문화사회와 은행의 역할



기지 수집
안승진
(금융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사회를 '다문화사회'로 분류한다.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273만명이다. 전체 인구의 5.3%에 해당한다.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 초입에 진입했다.

한국과 인구·경제 규모가 비슷한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외국인 인구 비중은 10% 안팎이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노동력 수요가 늘었고,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된 영향이다.

한국은 이미 농업 노동력의 60% 이상을

외국인 근로자로 충족하고 있다. 광업·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도 많다. 지자체 가운데 외국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전남 영암군은 주민의 21.1%가 외국인이며, 수도권에서도 외국인 비중이 특히 높은 안산시의 외국인 주민 비중은 13.3%에 달한다. 외국인은 우리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존재가 됐으며, 한국으로 귀화하는 외국인도 빠르게 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나아가는 가운데, 국내 주요 은행들은 외국인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내국인 시장과 달리 외국인 시장은 여전히 잠재력을 품고 있다. 은행권은 외국인 고객을 위한 전용 상품을 출시하고, 외국인 고객 전용 콜센터를 개설하고, 지점에서 상품 상담이나 통역을 담당하는 외국인 직원을 앞세워 외국인 고

객을 공략한다.

은행권이 외국인 금융을 확대하며 수익성과 다양성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불안이 산재해 있다. 외국인 전용 상품은 일반 대출과 비교해 부실률이 높고, 반년 안팎의 '파트타임' 형태로 채용되는 다문화·외국인 직원은 간단한 직무교육을 거쳐 가벼운 업무에만 투입된다.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다문화 행원을 찾아보기 어려운 배경이다. 전문성의 부재는 불신으로 이어진다.

'다문화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금융은 '신뢰의 산업'이다. 소비자의 기준도 다른 산업보다 더 엄격하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도 신뢰와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asj123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2월 24일 (음 1월 8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구설수와 언행을 주의하세요. 60년생 옳지 않은 일에 어쩔 수 없이 관여하게 되니 마음만 아픕니다. 72년생 막혔던 자금줄이 열리고 도움을 얻습니다. 84년생 이성관계에 신중하세요.



49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욕심은 금물. 61년생 스스로부터 다스리게 필요합니다. 73년생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85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하게 됩니다.



50년생 기분이 상쾌하고 좋은 날입니다. 62년생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십시오. 74년생 지금은 인내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86년생 대인관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51년생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법입니다. 63년생 할 일이 아직도 많으니 피곤합니다. 75년생 스스로의 판단을 믿으셔야 합니다. 87년생 친구나 지인들과의 갈등이 우려되니 주의하세요.



52년생 본인의 생각을 확실히 밝히는게 좋습니다. 64년생 더 많은 노력과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76년생 부부, 이성과의 갈등이 우려되니 주의하세요. 88년생 불확실한 일은 추진하지 마세요.



53년생 어려운 사람에게 덕을 베풀면 좋습니다. 65년생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77년생 욕심을 부리면 손해를 봅니다. 89년생 여행을 떠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54년생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66년생 낭비를 줄이고 더 검소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78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추진하세요. 90년생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55년생 지금은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입니다. 67년생 성실해 추진해 온 일에 보람이 있습니다. 79년생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91년생 어려움을 빠져나오니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56년생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68년생 남 다른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80년생 큰 변화가 올 수 있으니 준비가 필요합니다. 92년생 마음에 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네보세요.



57년생 주위사람때문에 약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69년생 의견차이를 인정하는게 필요합니다. 81년생 고집때문에 작은 갈등이 있습니다. 93년생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쯤은 헤아려주세요.



58년생 주위와 잘 협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70년생 생각지도 않은 수입이 들어옵니다. 82년생 기분 좋은 일이 생기는 길한 하루입니다. 94년생 친구와 연락하고 만나면 즐겁습니다.



59년생 빌려준 돈이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71년생 화식이나 모임에 가면 행운이 있습니다. 83년생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95년생 지나친 음주나 과식은 금물입니다.



김상회의四季 새해를 토정에 묻다

토정비결에 관해 담론을 쓴 적이 있다. 우리 선조들 특히 서민에게 친근한 위안이자 혹시 모를 미래에 대한 근심·걱정과 처신에 대한 지혜를 안내한 전통 예측서가 토정비결 아니던가? 토정비결의 진위에 대해 이런저런 설이 있지만 그런들 어찌하랴, 몇백 년을 한글로도 토가 달린 한민족의 토속 도참서로서 으뜸이다. 필자는 토정비결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토정 선생에 관해 존경심을 갖는다. 토정에 관해 전해지는 얘기는 파고 또 파고 미답밖에 보이지 않는다. 역시 조선 중기의 대학자이자 그 인품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율곡 이이의 '경연일기'에는 토정 이 지함에 대한 인품평이 실려 있는데 실로 그 내용이 존경스럽고도 신비했다. 어찌 도인이 아니면 그럴 수 있을까! 잠시 소개해 보자면 "아산 현감 이지함은 어려서부터 욕심이 적어서 인색하지 않았다. 기질을 이상하게 타고나서 능히 춤고 더운 것은 물론 배고픈 것도 견딜 수 있었다. 겨울에 벌거숭이로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앉아 견딜 수 있었으며 열흘 동안 곡기를 끊고도 병이 나지 않았다. 천성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두터워서 형제간에 있거나 없거나 자기 소유를 따지 않았다. 재물을 가볍게 여겨서 남에게 주기를 잘했다. 세상의 화려함이나 음악, 여색에 담담하여 아랑곳하지 않았다" 선생의 비범함을 다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모로 비범했다. 역시 대학자이자 덕이 높은 도학자로도 불리는 서경덕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했다고 알려졌기에 이지함 선생이 토정비결의 저자라고 믿고 싶다. 토정비결의 내용을 보자면 뭔가 안 좋은 년수나 월수를 기술하면 반드시 이리저리하면 흉을 감하거나 피할 방법까지도 함께 기술하고 있음이니 어려운 가운데 솟아날 방편까지 소개하여 민초들의 마음에 힘을 주고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3		6					7
		1	3					9
			9	7				5
						9	6	2
		2				7		
8	7	5						
	9			6	2			
2				4	3			9
4				9		2	6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프렌즈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2	1	6	8	8	2	9	7
8	6	8	7	9	2	9	1	2
7	2	9	2	9	1	8	6	8
1	8	7	9	6	2	9	2	8
9	8	2	8	1	7	9	6	
2	9	6	2	8	5	8	7	1
8	9	8	1	2	6	7	2	9
6	7	9	9	2	8	1	8	2
2	1	2	8	7	9	6	8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85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62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집값 담합·허위거래 잡는다... 제보 포상 최대 2억

6월까지 '집값 신고기간' 운영
누리집·스마트폰 앱 통해 신고
강남·서초·송파 등 중심 수사

2026년도 서울시 집값담합 중점수사

- 1 **00인 이하 판매 마개** 안내문,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집값 담합을 유도
- 2 **공인중개사 친목단체를 구성하여 비회원 공동중개를 제한**
- 3 **'가격뛰우기용' 거래되지 않은 매물을 거짓으로 거래완료되었다고 광고**

불법행위가 의심된다면?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글 남기기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 02-120

QR코드 스캔

서울시는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서울시

서울시는 2024년 7월 '단독방 집값 담합 유도'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A씨를 서울에서 처음으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작년 1월에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B아파트 소유자들을 검찰 송치하는 등 시는 지난해 총 60건(공인중개사법 위반 55건, 주택법 위반 5건)을 적발해 입건했다.

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는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과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또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

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

가 나타나자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필요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특정공인중개사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은 매물 표시·광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최근처럼 부동산 정책 변화가 큰 시기에는 어느 때보다 불법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시민의 재산권,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칙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자치구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경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대학 교양 비중 25%... 권장기준 35% 미달 교육부·대교협, '대학 AI 기본교육' 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현황조사
예산 70% 외부 의존, 정부 지원 늘려야



대학 강의 모습. /유도이미지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이후 전국대학의 교양교육 실태를 처음으로 점검한 조사에서, 교양 이수 학점 비율이 전체 졸업 학점의 24.99%에 그쳐 권장 기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위상은 강화됐지만, 교양교육이 여전히 외부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전 북대 총장)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23일 '2025년 교양교육과 전공자율선택제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5학년도 기준 전국 대학의 평균 전공 학점 비율은 50.32%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교양 이수 학점은 31.93학점으로, 전체 졸업 이수 학점 대비 비율은 24.99%에 그쳤다. 이는 교기

원이 권장하는 교양 이수 비율 35%와 비교해 상당한 격차가 있는 수치다. 전공자율선택제 확대에도 불구하고 교양교육의 실질적 비중은 충분히 늘지 못한 셈이다.

교양교육 조직 체계는 제도적으로 강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전체 대학의 50.4%가 교양대학이라는 단과대학 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교양교육원은 19.8%, 교양교육센터는 16.8%를 차지했다. 특히 교양교육 전담기관 부서장의

위상이 교무위원급인 대학이 77.9%로 집계돼, 교양교육의 행정·제도적 위상은 과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 구조에서는 한계가 드러났다. 2024학년도 기준 교양교육 전담기관의 평균 예산은 약 2억580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외부 재정지원 사업비가 약 70%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지역 대학일수록 외부 재정이 높고, 교양교육이 자체 재정 기반보다는 각종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조가 확인됐다. 안정적인 교양교육 운영을 위해서는 교내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오봉 대교협 회장은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의 균형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수"라며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20개교에 교당 3억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기본교육 확산에 나선다.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는 23일 '2026년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참여 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의 일상화로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이 기본적인 인공지능 역량을 갖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대학생 누구나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전공 분야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총 20개 대학을 선정해 대학당 3억원씩 지원한다. 선정

대학은 인공지능 기본교육과정 개발·운영과 함께 교수자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올해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대학 특성에 맞춘 인공지능 기본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한다. 선정된 대학은 인공지능 기초 교양 교과를 개발해 신입생 필수 이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비공학계열을 중심으로 특화 학문 분야를 지정해 소단위 전공 과정을 개설·운영한다.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수법 혁신도 병행한다. 선정 대학은 교수학습개발센터(CTL) 등 대학내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본교육과정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전공·비전공 교수 간 연계(페어링), 학습공동체 운영, 공동 연수(워크숍), 토론회(세미나) 등을 통해 교수자의 인공지능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초보맘에게 축산물꾸러미 드려요"

출산 장려 사업, 내달부터 추진

경기도는 도내 27개 시군과 함께 '2026년도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가 202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출산 장려·축산복지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 후 27개 시군(용인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김포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군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구리시, 의왕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파주시, 부천시)에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다. 대상자는 10만 원 상당의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원하는 장소로 배송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약 2만 명의 산모에게 꾸러

미를 제공할 계획이며, ▲출산·양육 환경 개선 ▲가족 간 화합 증진 ▲국내산 축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사업은 시군별 수요와 선호도를 반영해 1~4개의 다양한 꾸러미 구성(시군별로 다름)을 마련했다. 산모는 온라인 신청 시 제공되는 꾸러미 구성 사진을 확인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2025년말 출산 산모는 2026년 2월 28일 18시까지 반드시 신청해 지원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오늘의 날씨 2월 24일(화) 음력 1월 8일

수도권 날씨: -1 ~ 6°C

운동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빨래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세차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이출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지역별 날씨: 연천 -4/6, 동두천 -3/6, 가평 -4/6, 파주 -5/6, 서울 -1/6, 양평 -1/5, 인천 -1/5, 수원 2/11, 용인 0/5, 평택 0/5, 백령도 -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트럼프 '무제한 관세' 무역법 검토... '관세 무기화' 가능성 지속 /사진 뉴스
▲유럽연합 15% 관세 재부과에 '맞불 관세' 검토... 무역협상 연기 논의

▲美 신약정책 변경 예고... FDA국장 "허가신청 임상 2개에서 1개로 축소"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폭풍 지속... 연준 통화정책 명확실성도 확대

▲젤렌스키 "세계 3차대전 이미 시작... 푸틴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을 것"
▲이란 26일 제네바 회담서 합의 가능성... 우라늄 농축 포기 요구는 불수용



방한 관광객
2000만 눈앞
백화점 3사 총력
나



Life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오송에 새 동지
치료제 상용화 시동
L2



장애인과 동행하고, 나눔문화 확산... '연대의 가치' 실천하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삼양라운드스퀘어

불닭의 매운맛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삼양라운드스퀘어. 그 성장 뒤에는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또 하나의 힘이 있다. 장학사업, 장애인 일자리, 지역 나눔으로 이어진 '연대의 실천'이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삼양이건장학재단, 삼양원동문화재단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후원, 인재 양성 등 다층적인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단발성 기부가 아니라 재단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삼양라운드스퀘어의 사회공헌을 상징하는 사례 중 하나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삼양라운드어스'다. 삼양라운드어스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설립된 식품업계 최초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단순 고용을 넘어 실질적인 산업 참여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2009년 12월 한국 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2010년 10월 법인 '삼양THS'를 설립하며 장애인 고용에 본격 나섰다. 이후 2023년 7월 그룹 차원의 CI 리뉴얼을 계기로 '연대의 가치'를 강조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삼양라운드어스는 하루 5톤 처리 규모의 야채선별장과 400톤 규모의 냉동창고를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라면 수프의 원재료를 선별하고 이물질질을 걸러내는 공정을 담당하며, 이렇게 가공된 원재료는 삼양식품



명동 신사옥에서 열린 '하우스-워밍 데이' 행사에서 임직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고 있는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

/삼양라운드스퀘어

재단 중심 장기적·구조적 나눔 펼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해 단순한 지원 아닌 파트너로 함께 성장

55년간 장학사업... 인재 양성 앞장 삼양원동문화재단 통한 문화진흥사업 먹거리 기업 특성 살려 나눔·문화 결합

'모두 행복한 맛있는 세상' 철학 계승 지역 곳곳 어려운 이웃에 식료품 나눔

에 공급된다. 단순 지원 조직이 아니라, 그룹의 식품 안전과 품질을 책임지는 생산 파트너로 기능하고 있는 셈이다.

삼양라운드어스는 기술과 인력이 결합된 최적의 작업 환경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장애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 속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삼양라운드스퀘어의 사회공헌 철학은 창업주인 고(故) 전중운 명예회장의 신념에서 출발한다. 삼양식품이 아직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겪던 시절, 전 명예회장은 "기업의 이윤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 철학은 1970년 7월 공익재단 삼양이건장학재단 설립으로 구체화됐다.

재단명에 쓰인 '이건(以建)'은 전중운 초대 이사장의 아호로 '뜻한 바를 기필코 이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름 그대로 삼양이건장학재단은 지난 55년간 장학금 지급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도서 출판과 학술 연구를 지원하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장학 사업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어려운 환경에서도 배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사회공헌의 외연은 삼양원동문화재단을 통해 더욱 확장됐다. 삼양원동문화재단은 전중운 명예회장의 부인인 원동(遠東) 이계순 여사의 뜻을 담아 2017년 3월 설립된 비영리 재단이다.

이 재단은 문화·예술과 식품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맛있는 이웃 나눔 봉사단' 운영, 취약계층 지원 등 나눔문화 확산 사업과 함께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한 장학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먹거리 기업의 특성을 살려 '나눔'과 '문화'를 결합한 점이 삼양원동문화재단 활동의 특징이다.

삼양라운드스퀘어와 삼양식품은 사회공헌 활동을 일삼 속 실천으로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월간 맛있는 나눔 활동'이다. 이 활동은 전중운 명예회장의 철학을 계승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맛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본사를 서울 명동으로 이전한 삼양라운드스퀘어와 삼양식품은 이전을 기념해 인근 지역사회에 라면과 스낵 등 식료품 1만 8000식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중부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와의 협력을 통해 중구재가노인복지기관, 중림동주민센터, 명동주민센터, 남대문쪽방촌 상담소 등에 전달됐다. 물품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교육과 결식 예방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와 비영리 단체 119사랑나눔회의의 추천을 받아 중부소방서, 서울소방학교, 중랑소방서 등 소방관계 기관에도 기부를 진행했다.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기업'의 의미를 실천한 셈이다.

이와 함께 관계사인 '맛이나 봉사단'을 통해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밤골아이네 공부방' 후원에도 나섰다. 밤골아이네 공부방은 1984년부터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돌봄과 학습을 지원해온 공간이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정기적인 간식 후원과 장학금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아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걸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도.

삼양식품 관계자는 "병오년 한 해의 시작과 본사 이전을 계기로 지역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삼양라운드스퀘어가 중부소방서와 중부경찰서 연계 중구재가노인복지기관에 제품을 기부했다.

메트로 한줄뉴스



▲올림픽 피겨 '채점 논란' 지속... "심판들 자국 선수에 점수 더 주는 경향"
▲프로야구 한화, 노시학과 '계약기간 11년' 30억 계약...역대 최장기 계약 /사진 뉴시스

▲K리그 전북현대 '정정용 체제' 시험대...對 대전하나시즈 데뷔전 첫 승
▲'부상 복귀' 조규성, 출전 16분 만에 통증 호소...월드컵 출전도 '먹구름'

▲여자 배트민턴 안세영, 내달 영국 '전영오픈' 行... '커리어 하이' 도전 지속
▲박나래 첫 경찰조사 참석...스트레스성 탈모·일상생활 불가능 호소